본 연구보고서는 2019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에서 제작지원합니다.

희망리포트

내일상상프로젝트의 확산과 지역사회 및 학교 연계 운영 방안

유진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희망제작소 The Hope Institute

희망리포트

내일상상프로젝트의 확산과 지역사회 및 학교 연계 운영 방안

유진(시민주권센터 연구원 | jinryu@makehope.org)

*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으로 진행하는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 지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며, 희망제작소 · 남원춘향골교육공동체 · 남원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 · 진주교육공동체 결 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9년에 진행한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목차

연구요약 8

1. 사업 및 연구 개요 13

1) 내일상상프로젝트 2차 연속사업 개요 15

2) 연구 개요 20

2. 진로체험 활동의 지역사회 연계 현황 27

1) 진로체험 활동과 사회자본의 역할 29

2) 지역별 진로체험 자원 공급 현황: 지역 간 자원 불균형 32

3) 지역별 진로체험 자원 경험 및 수요 현황: 사회자본의 중요성 39

3. 내일상상프로젝트와 지역사회 및 학교의 연계 53

1) 내일상상프로젝트와 지역사회 연계 55

2) 내일상상프로젝트와 학교 연계 64

4. 내일상상프로젝트 참여 청소년의 변화와 성장 79

1) 내일상상 핵심역량 지수 81

2) 1차 조사 결과 86

3) 1, 2차 조사 결과 비교 89

5. 결론 및 제언 97

1)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의미 99

2) 공교육 연계 모형 103

3) 공동자원체계 구축 106

참고문헌 114

표 목차

[표 1-1] 내일상상프로젝트 1 · 2차연속사업 주요내용 15
[표 1-2] 내일상상프로젝트 단계별 진행 내용 16
[표 1-3] 내일상상프로젝트 2차연속사업의 연모별 핵심주제 및 목표 19
[표 1-4] 연구추진 체계 23
[표 1-5] 현황조사개요 24
[표 1-6] 추적조사개요 25
[표 1-7] FGI 인터뷰 조사 대상 개요 25
[표 2-1] 지역별 초 · 중 · 고등학생 대비 체험처 수 33
[표 2-2] 지역별 면적 대비 체험처 수 35
[표 2-3] 남원시와 진주시의 동지역 및 읍 · 면 지역 진로체험처 현황 36
[표 2-4] 지역별 진로체험처 직무/학과 분야 개수 37
[표 2-5] 남원시와 진주시의 진로체험처 직무/학과분야 개수 38
[표 2-6] 내일상상프로젝트 참가지역 청소년의 교내 진로체험교육 경험 39
[표 2-7] 내일상상프로젝트 참가지역 청소년의 교외 진로체험교육 경험 40
[표 2-8] 진주및 남원지역 학생들이 바라는 진로체험 활동(빈도) 49
[표 2-9] 진주및 남원지역 학생들이 바라는 진로체험 활동(우선순위) 50
[표 3-1] 남원시내 권역 내일찾기 프로젝트(3단계) 활동 내용 57
[표 3-2] 남원지리산 권역내 일찾기 프로젝트(3단계) 활동내용 60
[표 3-3] 진주내일찾기 프로젝트(3단계) 활동내용 62
[표 3-4] 내일상상프로젝트 단계별 지역사회 연계강화 방안 64
[표 3-5] 내일상상프로젝트 단계별 학교 연계내용 65
[표 4-1] 청소년의 핵심역량 중 자아이해력의 요인분석 결과 (KMO 값 보고) 83
[표 4-2] 청소년의 핵심역량 중 자아이해력의 요인분석 결과 (KMO 값 보고) 84
[표 4-3] 청소년의 핵심역량 중 진로주도성의 요인분석 결과 (KMO 값 보고) 84
[표 4-4] 청소년의 핵심역량 중 직업의식의 요인분석 결 과 (KMO 값 보고) 85
[표 4-5] 청소년의 핵심역량 중 공동체 의식의 요인분석 결과(KMO 값 보고) 85
[표 4-6] 청소년들의 직업의식에 대한 문항별 빈도표 88
[표 5-1] 주관(행)-장소(열)에 따른 연계사업의 모형 (최창욱, 2009) 102
[표 5-2] 남원시내 권역 지역자원 아카이빙결과 104
[표 5-3] 남원지리산 권역지역자원 아카이빙 결과 107
[표 5-4] 진주지역 지역자원 아카이빙 결과 109

그림목차

[그림 1-1] 진주 지역내일상상프로젝트 3개년 운영 계획: 기본형 17

[그림 1-2] 남원 시내권역 내일상상프로젝트 3개년 운영모델: 변동형 17

[그림 1-3] 남원 지리산 권역 내일상상프로젝트 3개년 운영 모델: 심화형 18

[그림 1-4] 진로체험 운영 체계 21

[그림 2-1] 지역 및 학교급에 따른 교내 진로체험 전반적인 만족도 41

[그림 2-2] 지역 및 학교급에 따른 교외 진로체험 전반적인 만족도 41

[그림 2-3] 교내 진로체험 활동의 경험 횟수와 만족도의 상관관계 42

[그림 2-4] 교외 진로체험 활동의 경험 횟수와 만족도의 상관관계 43

[그림 2-5] 지역 및 학교급에 따른 교내 진로체험 활동 영역별 경험 비율 44

[그림 2-6] 지역 및 학교급에 따른 교외 진로체험 활동 영역별 경험 비율 45

[그림 2-7] 지역 및 학교급에 따른 교내 진로체험 활동 만족요인 비율 46

[그림 2-8] 지역 및 학교급에 따른 교외 진로체험 활동 만족요인 비율 47

[그림 2-9] 진주 및 남원 지역권역 학생들이 바라는 진로체험 활동 48

[그림 3-1] 내일상상프로젝트 전체 진행개요 55

[그림 3-2] 남원 시내권역 내일생각워크숍(2단계) 진행 개요 56

[그림 3-3] 남원 지리산 권역 상상학교(1단계) 및 내일생각워크숍(2단계) 진행개요 59

[그림 3-4] 진주 지역상상학교(1단계)및 내일생각워크숍(2단계)진행 개요 61

[그림 4-1] 내일상상프로젝트의 다섯가지 지향 가치(조현진 · 김수영, 2019) 81

[그림 4-2] 청소년 핵심 5개 역량 설문문항 요인분석 결과 82

[그림 4-3] 청소년 핵심역량의 지역별 비교 86

[그림 4-4] 청소년 핵심역량의 지역및 차수별 비교 90

[그림 4-5] 차수에 따른 핵심역량 변화 (남원시내 권역) 92

[그림 4-6] 차수에 따른 핵심역량 변화 (진주지역) 92

[그림 4-7] 차수에 따른 핵심역량 변화 (남원지리산 권역) 92

[그림 4-8] 청소년의 주된 관심사의 차수 별 비교 94

[그림 4-9] 청소년이 생각하는 진로의 의미에 대한 변화 (시내 권역) 96

[그림 4-10] 청소년이 생각하는 진로의 의미에 대한 변화 (남원 지리산 권역) 96

[그림 4-11] 청소년이 생각하는 진로의 의미에 대한 변화 (진주 지역) 96

[그림 5-1]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지역사회-학교 연계모형 105

연구 요약

내일상상프로젝트는 2016년부터 3년간 구축한 청소년 진로 탐색 모델을 2019년부터 3년 동안 세 지역(남원 시내 권역, 남원 지리산 권역, 진주시)에서 적용한다. 2차 연속사업의 핵심 목표는 새로운 지역에 모델을 확산하는 동시에 모델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확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분석하며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을 보완하고자 한다.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각 지역의 수행기관은 지역사회와 청소년의 상황에 맞게 3개의 모듈(상상학교, 내일생각워크숍, 내일찾기프로젝트)로 구성된 내일상상프로젝트 모델을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3개의 모듈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기존 진로교육에서도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중요하게 강조된다. 실제 직업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 필요한데, 학교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직접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5년 제정된 진로교육법에 따라 학교에서 시행하는 진로체험 활동은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지역 내 진로체험처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분야 및 활동에 참여한다. 진로체험처 정보를 제공하는 전산망 '꿈길'에 전국의 진로체험처를 6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체험 활동을 제공하는 단체 및 기업체 등 물적 자본 중심으로 공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꿈길'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의 진로체험처를 광역·도 단위로 분석한 결과,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 간 양적·질적 불평등을 발견했다. 다만, 양적 불평등은 학생 인구수에 대비하여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인구 기준에서는 오히려 수도권 지역에서 학생 100명 당 진로체험처 수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의 특성과 생활반경이 좁은 편인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성을 반영하기 위해 면적당 체험처 수를 살펴봤을 때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열악한 상황임이 드러났다. 또한, 체험처 분야의 다양성도 현저히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광역·도 단위가 아닌, 청소년들의 실제 생활 단위에 가까운 시·군 혹은 읍·면 단위로 나눠서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청소년들은 진로체험 활동에서 지역 간 불균형으로부터 영향을 얼마나 받으며, 지역 간 불균형은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진행되는 진로체험 활동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을까?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세 지역의 청소년에게 진로체험 활동 경험과 수요를 조사한 결과, 세 가지를 발견했다. 첫째, 교내 진로체험 활동과 교외 진로체험 활동의 경험 및 만족도에서 교외 진로체험 활동의 참여 비율이 교내 진로체험 활동보다 1/3 정도 적은 반면, 만족도는 더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교외 체험 활동 만족도에 긍정적인 편이다. 교외 진로체험 활동의 유형별 경험 횟수와 만족도의 상관관계가 교내 진로체험 활동보다 약 2배 높은 것은 자원 집중 문제의 심각성을 더 드러낸다. 단, 남원 지리산 권역에서는 정반대로 교외 진로체험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의 정도가 교내 진로체험 활동에 비해 적다. 교내 진로체험 활동 경험 비율도 다른 두 지역에 비해 약 8%가 높다. 마지막으로, 교내외 진로체험 활동에서 모두 협업 능력을 강화하거나 지역사회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요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두 결과는 진로체험 활동의 경험과 만족도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물적 자본보다는 사회자본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교외활동은 가정 내 사회자본(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 및 개입, 부모 자녀 간 상호작용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가정 내 사회자본을 더 많이 가진 청소년이 만족도가 더 높은 교외 진로체험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지리산 권역의 경험 비율과 만족도가 높은 결과는 해당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자본의 영향으로 보인다. 이렇게 가정 안팎의 사회자본이 진로체험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진로체험 활동에서 청소년들이 사회자본을 축적할 기회가 부족한 것은 문제다.

이번 조사의 성과는 지역사회의 사회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통해 진로체험 활동의 물적·인적 자본 부족 문제를 해소할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지역사회와 연계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내일상상프로젝트에서 청소년들은 또래와 함께 프로젝트를 이끌어 가는 것은 물론,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어른들과 만나는 경험을 한다. 올해 각 지역기관은 3개의 모듈에서 모두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내일상상프로젝트 안에서 지역사회와 더 강한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발견했다. 첫째, 상상학교에서는 지역 내에서 관계망을 가지고 있는 인적 자본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인적자본을 발굴할 수 있다. 상상학교를 통해 연결된 인적 자본은 후속 단계인 내일생각워크숍과 내일찾기프로젝트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내일생각워크숍에서는 워크숍 활동과 콘텐츠를 지역이나 마을과 관련된 주제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마지막으로, 내일찾기프로젝트에서는 길잡이 교사 역할이 중요하다. 길잡이 교사는 청소년들의 프로젝트 활동을 함께 하면서 청소년에게 필요한 자원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학교의 사회자본도 활용한다. 1차 연속사업에 이어 2차 연속사업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학교와의 연계가 관찰되고 있다. 연계 내용은 주로 청소년 참가자 모집, 공간 지원, 교사의 수업 및 지도 경험 활용 등으로 이뤄진다. 학교가 현행 진로체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갖는 관계는 여전히 물적 자본 중심이고, 따라서 비수도권 지역의 구조적인 한계로 이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수가 없다. 내일상상프로젝트의 학교 연계는 사회자본을 바탕으로 한다. 학교-진로체험센터 등의 기관 간 연계가 아닌, 교육 및 활동 의지가 높은 교사들이 개인 단위에서 관계를 맺는다. 이를 통해 청소년과 교사들의 학교 내 사회자

본을 더 강화시켜준다.

지역사회와 학교의 사회자본을 바탕으로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어떠한 변화를 보였을까? 내일상상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구성한 5개 역량지수(자아 이해, 협업 능력, 주도성, 직업의식, 공동체 의식)를 추적조사한 결과, 남원 지리산 권역을 제외한 두 지역에서는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역량이 높아진 것을 발견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세 지역에서 협업 능력의 향상이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협업 능력은 또래 관계, 집단 활동 역량 등 사회자본 형성에 기본적인 역량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결과다. 이는 기존 진로체험 활동에서는 반대로 가장 약한 요인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내일상상프로젝트의 모듈이 가진 효용성을 확인한 것이 주요한 성과다. 내일상상프로젝트 세 개 모듈을 기본 형태로 적용한 진주 지역의 청소년에게서 긍정적인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이다. 1차년도 운영 후 평가를 거쳐 내일상상프로젝트 모듈의 효용성을 확인한 결과, 2차년도에는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세 지역 모두 기본 모형으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다. 세 지역 모두 상상학교, 내일생각워크숍, 내일찾기프로젝트의 순서를 따르고 내일생각워크숍의 구성 프로그램도 상상캠프, 사전탐색워크숍, 기획워크숍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2차년도에 동일한 문항을 통해 청소년들의 핵심역량을 추적조사하면, 내일상상프로젝트 모듈을 지속적으로 검증해볼 수 있다.

비수도권 지역에 나타나는 물적 · 인적 자본 부족 문제를 사회자본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과 내일상상프로젝트의 모듈에 따라 청소년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사회자본을 활용하여, 스스로 사회자본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음을 발견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내일상상프로젝트가 지역사회 안에서 공교육과 연계하여 진행할 필요성(학교 사회자본 활용)과 더 나아가 공동자원체계를 갖출 것(지역사회 사회자본 활용)을 제언하고자 한다.

내일상상프로젝트의 공교육과 연계는 학교 혹은 지역기관이 중심이 되었던 기존 연계 모형과는 차별점이 있다. 도입기인 1차년도에는 학교 단위의 연계가 아니라, 개인 단위의 연계 양상을 띠었다. 프로젝트가 정착, 성숙하는 앞으로의 2년 동안 변화를 관찰할 필요

가 있다. 그리고 지역기관의 역할이 더 크기는 하지만, 학교와 지역기관이 기존의 연계 형태에서 보였던 위계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역사회 안에서 학교와 지역기관은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통해 형성된 파트너 관계를 바탕으로 쌍방향의 상호작용을 한다.

공교육과의 연계 모형을 통해 학교의 사회자본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화하더라도 교육격차 해소가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나, 지역기관이 연결망을 가지지 않는 학교의 청소년 등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접근이 어려운 지역사회 내 청소년들에게도 가치가 확산이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3년간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통해 발굴 · 연계된 지역자원과 지역기관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계망을 통해 가지고 있던 지역자원을 아카이빙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병행한다. 1차년도의 밥굴 자원을 살펴보면, 물적 자본 중심의 진로체험처와는 달리 네트워크 및 관계를 통해 연결을 지원하는 등의 사회자본 성격의 자원이 있다. 지역사회 내 사회자본을 (재)생산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통해 내일상상프로젝트의 가치가 도달되는 청소년의 범위를 확장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안에서 구축되는 공동자원체계를 기반으로 지역기관의 자립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내일상상프로젝트은 다양한 방향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역 간 모델의 이식만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도 영역간 확산이 나타나고, 더 나아가 내일상상프로젝트로 발굴된 지역자원 활용 범위의 확산을 지향하고 있다. 공교육으로의 확산 자원 활용 범위의 확산을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내일상상프로젝트의 확산을 목표로 사업을 운영하는 남은 2년 동안의 주요 과제일 것이다.

희망리포트

1. 사업 및 연구 개요

1) 내일상상프로젝트 2차연속사업 개요

2) 연구 개요

1. 사업 및 연구 개요

1) 내일상상프로젝트 2차연속사업 개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1차연속사업으로 마무리한 내일상상프로젝트가 다시 2차연속사업으로 2019년부터 3년간 다시 진행된다. 2차연속사업에서는 1차연속사업으로 순창, 완주, 장수, 전주, 진안 등 5개 지역에서 청소년들과 만남을 통해 구축한 지역사회 기반 진로탐색 모델을 새로운 3개 지역(진주, 남원 시내 권역, 남원 지리산 권역)에서 적용하며 확산에 중점을 둘 것이다.

[표 1-1] 내일상상프로젝트 1 · 2차연속사업 주요 내용

구분	지역	주요 목표
1차연속사업 (2016-2018)	순창, 완주, 장수, 전주, 진안	지역 기반 청소년 진로탐색 모델 개발
2차연속사업 (2019-2021)	남원 시내 권역, 남원 지리산 권역, 진주	지역 기반 청소년 진로탐색 모델 확산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구성한 내일상상프로젝트 모델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된다. 진로에 대한 시각을 확장하는 1단계 '상상학교'를 시작으로 개인의 욕구 및 재능과 지역의 필요를 탐색하며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2단계 내일생각워크숍을 거쳐 마지막으로, 워크숍에서 기획한 프로젝트를 실제로 수행하는 3단계 '내일찾기프로젝트'로 마무리된다.[1)]

각각의 단계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이 내일상상프로젝트의 핵심 방향

1) 내일상상프로젝트의 단계별 세부 실행과정에 대한 설명은 〈청소년의 오늘 그리고 내일: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내일상상프로젝트 매뉴얼〉 참고.

[표 1-2] 내일상상프로젝트 단계별 진행 내용

상상학교	내일생각워크숍	내일찾기프로젝트
진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깨워주는 강연과 다양한 삶의 모습을 나누는 사람책	다양한 워크숍을 통해 욕구와 재능을 발견하며 지역 내외를 탐색하여 프로젝트 기획	지역에 필요한 일을 직접 설계하고 청소년의 욕구와 연결한 팀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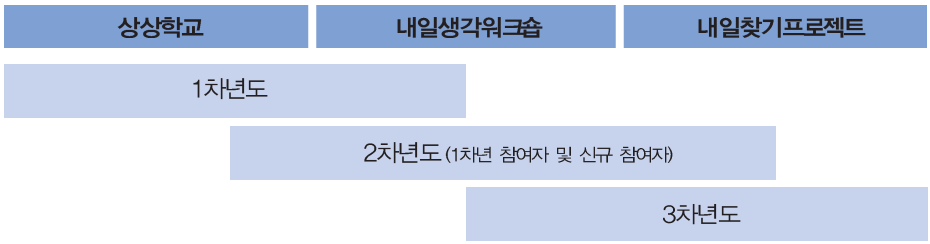
이다. 상상학교 강연자와 사람책은 유망 '직업인' 보다는, 청소년이 물리적 · 심리적으로 체감가능한 거리 안에서 다양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선정하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결합한다. 이러한 연결을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를 '삶터' 로서 인식하면서 자연스럽게 공동체 속으로 스며들게 된다.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경험은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과 심리적 유대감을 강화" 한다(홍정희, 2016).

2차연속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3개 지역은 1차연속사업에 참여했던 지역과 지리적 접근성이 높은 곳으로, 1차연속사업에 참여했던 지역기관과 청소년들과 연계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또한, 세 지역은 각각 도심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산어촌지역 등 세분되는 특성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지역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확산의 효과 및 방법 등에있어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관찰할 수 있다.

세 지역에서 3년 동안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지역기관(진주교육공동체 결, 남원 춘향골교육공동체, 남원 지리산교육공동체)은 이러한 지역의 특성과 지역 청소년의 상황에 맞게 모듈 형태의 세 단계를 유동적으로 적용한다. 상상학교-내일생각워크숍-내일찾기프로젝트로 이루어진 과정을 단계별로 차례대로 모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그 결과, 세 지역은 세 개의 모듈을 각각 다른 형태로 조합하여 3년 동안 운영한다.

진주는 청소년 및 청년인구의 이탈, 청소년 활동 저조, 진로체험 교육미흡 등 비수도권 지역이 지니는 전형적인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는 곳으로, 내일상상프로젝트 모델의 기본형을 따라 세 개의 단계를 차례대로 진행한다. 1차년도에는 지역 내 인적 자본을 모으고 인식을 변화시키는 상상학교를 집중적으로 운영했고, 이를 바탕으로 2, 3차년도에는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자원을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심화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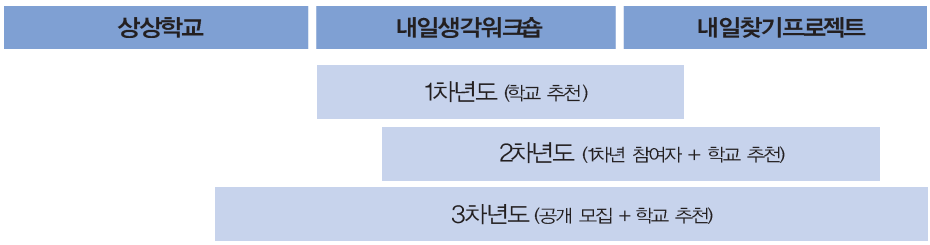
[그림 1-1] 진주 지역 내일상상프로젝트 3개년 운영 계획: 기본형



※ 비고: 음영으로 표시된 단계는 각 년도에서 주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이다. 음영이 표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표시가 안 된 단계를 운영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남원시내 권역은 청소년 활동을 경험한 청소년 수가 전반적으로 적고, 활동 경험의 격차가 크다는 지역기관의 분석에 따라, 활동 경험이 적은 청소년들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 따라서 1차년도에는 학교 추천을 통해 평소 자발적으로 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 청소년만 모집하여 워크숍 활동을 기존 모델보다 자아발견 및 탐색 활동을 강화해서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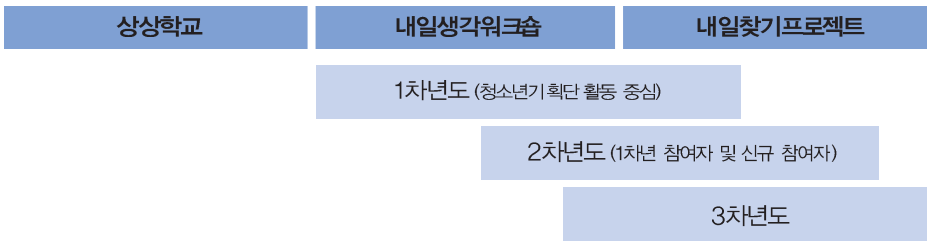
[그림 1-2] 남원 시내 권역 내일상상프로젝트 3개년 운영 계획: 변동형



※ 비고: 음영으로 표시된 단계는 각 년도에서 주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이다. 음영이 표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표시가 안 된 단계를 운영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남원 지리산 권역은 산내면을 중심으로 1990년대 후반 형성되기 시작한 귀농공동체 기반의 지역으로 청소년 관련 활동이 일반적인 농산어촌 지역에 비해 성숙한 편이다, 최근 2년 동안, 경기도 의정부 '몽실학교' 와 청소년 교류캠프 및 사회참여 활동을 진행하여 활동의지가 높은 청소년을 이미 발굴한 상황이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1차년도부터 바로 워크숍과 프로젝트 등 심화 단계를 적용해서 진행했다.

[그림 1-3] 남원 지리산 권역 내일상상프로젝트 3개년 운영 계획: 심화형



※비고: 음영으로 표시된 단계는 각 년도에서 주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이다. 음영이 표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표시가 안 된 단계를 운영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각각 다른 특성이 있는 세 지역은 비수도권 지역들을 '비수도권 지역' 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로만 볼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청소년 진로탐색 활동이라는 같은 목적이 있더라도,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모델이 필요하고, 특히 지역사회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모듈 형태로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일상상프로젝트 모델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역별로 모듈을 차별적으로 적용한 결과를 청소년의 성장과 변화와 연결해 모듈별 효용성을 검증해볼 수 있다.

세 지역이 서로 다른 형태로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진행하지만, 세 지역이 공통으로 목표하는 연도별 핵심 주제는 [표 1-3]과 같다. 1차년도의 탐색을 바탕으로 2차년도에는 지역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연결을 도모하고, 마지막 해에는 지역 너머의 확장을 추진하고자 한다.

[표 1-3] 내일상상프로젝트 2차연속사업의 연도별 핵심 주제 및 목표

연차	1차년도(2019)	2차년도(2020)	3차년도(2021)
핵심 주제	탐색	연결	확장
청소년	'나'를 발견하기	'함께' 알아가기	'지역사회'에서 일하기
지역 기관	인적 · 물적 자본 발굴 및 확보	지역 내 관계 구축 (청소년-청소년, 청년-청소년, 기관-기관, 공공-민간)	지역 간 네트워크 형성, 지속가능성 확보

2차연속사업에서는 세부 목표를 청소년과 지역기관을 구분하여 설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성장과 함께 지역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주요한 차별점이다. 모델의 개발 단계와 달리, 확산 단계에서는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모듈을 조합하여 프로젝트를 운영하기 위한 지역기관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다양한 자원이 부족한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에서는 청소년 진로탐색 관련 지역자원을 발굴 · 연계하고, 생태계를 형성하는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지역 생태계 형성이 중요한 과업이다. 다행히,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은 대도시보다 네트워크망이 촘촘히 형성되어 있는 편이다(조아미, 2018). 하지만, 이는 전반적인 특성일 뿐, 지역마다 자원이 발굴되고 연계되는 정도가 다르고 청소년들의 욕구도 다르다. 또한, 지역사회의 공급과 청소년의 수요에서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일상상프로젝트 모델이 청소년과 지역 간의 상보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청소년의 성장과 지역기관 및 지역사회의 성장을 지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비수도권 지역 세 곳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청소년 진로 관련 자원이 형성되어 있는 현황과 청소년들의 진로체험 경험 및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여,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지역자원 연계 · 축적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 그리고 공교육 영역으로 영향력을 확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지역사회 안에서 학교와 연계하여 확산함으로써 3차년도 이후에 각 지역기관이 지역 내 및 지역 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공동자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사회구조의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의 변화는 우리 삶을 전반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고용문제, 특히 청년 실업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고질적인 과제가 됐다. 소수자 집단 중 하나로서 "사회의 단면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청소년(함세정, 2019) 역시 이러한 사회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2018년 사회조사에서 13~24세의 청소년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직업(30.2%)'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8). 2002년 조사에서는 '가정환경', '이성교제'를 주로 고민한다고 응답했다(통계청, 2012). 15~19세 청소년 중 '직업'을 응답한 비율은 5.2%였고, 20~24세는 8.6%였다. 청소년이 일자리나 직업에 느끼는 불안함이 16년 만에 상당히 커졌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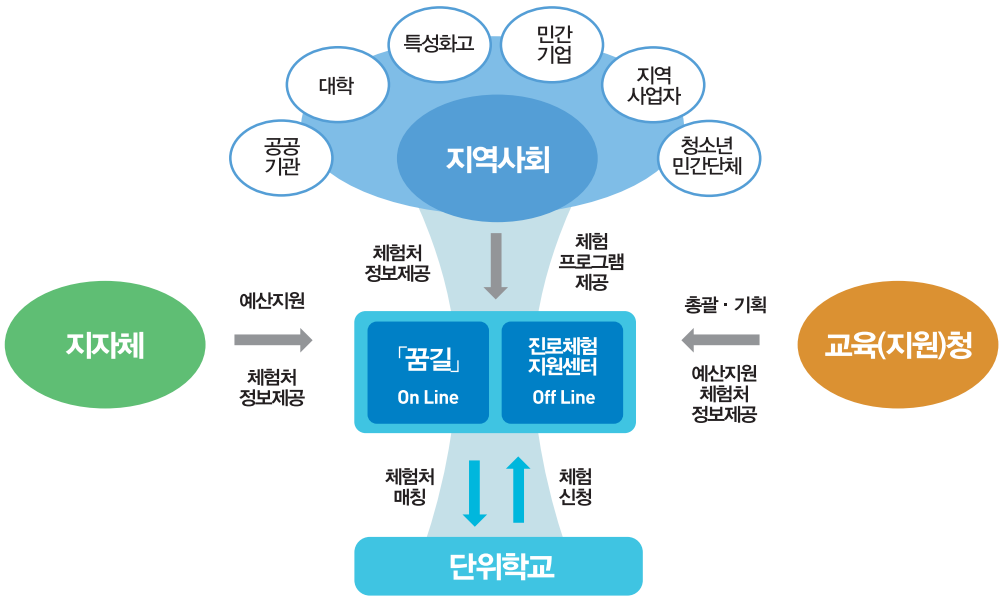
국가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을 핵심 교육목표로 제시하는 것도 사회변화에 대한 대응 중 하나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2015년에는 진로교육법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진로교육법의 취지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대응하여 자신의 일과 삶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자 하는" 데 있다(진미석, 2015). 진로교육법이 제정된 후, 자유학기제, 창의적 체험 활동 등이 시행되고 있고, 적용 지역과 운영 기간이 점차 확장되면서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 활동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진로교육법은 진로교육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제공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

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으로 유형을 구분한다. 진로교육에 대한 정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진로교육의 핵심추진 방식이다.

진로교육법 제정 이후, 진로체험은 진로체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단위학교가 연결되고,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총괄 운영 및 예산 지원 등을 하는 체계로 운영된다([그림 1-4] 참고). 진로체험기관 정보 제공을 의무화한 진로교육법 제 18조에 따라, 교육부는 진로체험 전산망 '꿈길'[2]을 구축해 전국의 진로체험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진로체험처는 시·도 교육청의 점검 및 인증을 거쳐[3] 등록되고, 진로정보 교육망 통합회원 가입자는 등록된 진로체험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4]. 지자체와 교육청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강화되어 6개 유형[5]에 따라 총 16,471개의 체험처를 발굴했다.

[그림 1-4] 진로체험 운영 체계



※ 출처: http://www.ggoomgil.go.kr/front/info/info03.do?rootMenuId=01&menuId=0103)

---

2) https://www.ggoomgil.go.kr/

3) 시·도 교육청은 점검 결과 적합, 부적합으로 나누고, 적합한 경우에 인증한다. 부적합한 경우, 1차 개선을 권고한 후, 재점검 결과 적합하면 인증이 된다. 인증을 완료한 후에도 수시 점검을 시행한다.

4) 개인 회원이 로그인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은 2018년 12월에 추가되었다.

5) 진로교육법 제2조 3항에 근거하여 진로체험을 활동 성격에 따라 강연·대화형, 현장견학, 직업실무체험, 현장직업체험, 진로캠프로 구분한다.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진로교육이 제도화되면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진로를탐색하고 체험할 기회가 늘어난 것은 바람직하나,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에 존재하는 인적 · 물적 자본의 불균형이 청소년들의 진로교육 격차에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또한, 제도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되어있는 진로체험 자원이 실제 지역사회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원들을 포함하고 있지않을지도 모른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가설을 바탕으로, 지역 간 진로체험 자원의 불균형 실태를 파악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청소년들이 지역간 자원 불균형에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지 경험 및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고자한다.

자료 조사및 설문 조사에서 발견되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내일상상 프로젝트가 갖는 의미를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소년, 지역기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양적 · 질적 조사를 통해 조명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확산하기 위한 추진체계 모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궁극적으로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확산하고자 하는 2차연속사업의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과 구체적인 전개 방식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있다. 단순히 동일한 프로그램과 모델이 다른 지역으로 이식되는 것을 '확산' 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넘나들며 주고받는 영향력,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서 청소년 진로탐색 활동의 공동자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여 다방향으로 확산하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확산' 의 개념을 다면화해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표 1-4] 연구 추진 체계

조사 방법	조사 내용	조사 대상
문헌 조사	사회자본과 교육격차 지역사회-학교 연계 모형 공동자원체계(commons)	관련 문헌
▼		
자료 조사	진로체험 활동 자원의 불균형 실태 파악	'꿈길'
▼		
설문 조사	청소년의 교내/외 진로체험 활동 경험 및 수요 청소년이 바라는 진로체험 활동	3개 지역 청소년 (12개 중고등학교)
▼		
추적조사 (1, 2차)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의미: 청소년의 변화와 성장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
▼		
심층 인터뷰	교내 진로프로그램 한계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의미: 학교와의 연계 지역기관 실무자 및 프로그램 참여 교사 타 민간 프로그램과의 비교 및 한계	지역기관 실무자 및 프로그램 참여 교사

본 연구는 [표 1-4]와 같은 체계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①본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이 되는 사회자본과 공동자원체계에 대한 문헌을 조사하여 연구 틀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②교육부가 운영하는 진로체험 전산망 '꿈길' 자료를 통해 현재 진로체험 활동 자원의 분포 및 자원체계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로 발견된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실제로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③진로체험 교육 서비스 최종 사용자(end-user)인 청소년의 진로체험 활동에 대한 인식, 경험, 수요 조사를 했다. 이 조사는 내일상상프로젝트가 운영된 3개 지역(남원시 시내 권역, 남원시 지리산 권역, 진주시)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교내외 진로체험 활동의 경험 및 만족도와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지역 및 교내외 기준 등으로 비교 분석을 했다.

[표 1-5] 현황조사 개요

지역	학교	표본 크기
남원 (시내 권역)	중학교	331명
	고등학교	–
남원 (지리산 권역)	중학교	151명
	고등학교	27명
진주	중학교	242명
	고등학교	220명
합 계		971명

설문조사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을 지역과 학교급에 따라 정리하면 [표 1-5]와 같다. 모집단이 가장 큰 진주 지역에서 462명으로 가장 많은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비율도 비슷했다. 남원 지역은 생활권에 따라 지리산 권역과 시내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지리산 권역에서는 총 178명 중에 고등학생은 27명, 중학생은 151명이 참여하였다. 시내 권역에서는 중학생만 331명이 참여하였다.

자료 조사와 설문 조사에서 발견되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비수도권에서 내일상상프로젝트가 갖는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④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추적조사하였다. 2단계 내일생각워크숍과 3단계 내일찾기프로젝트에 참여한 청소년이 2단계 워크숍 시작 전(1차)과 3단계 프로젝트 종료 후(2차), 동일한 문항에 응답하여 5가지 영역[6]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했는지 관찰했다. 1, 2차 조사 시 조사 인원의 차이가 나는 것은 2, 3단계 과정 중 도중에 추가 유입되거나 하차를 하는 청소년이 발생했던 이유도 있고, 프로젝트 종료후, 일괄 조사가 어려웠던 현장 기반 프로젝트 실행사업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1, 2차 둘 다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의 수는 26명이다.

6) 자아이해, 협업 능력, 주도성, 직업의식, 공동체 의식으로 구분하여 내일상상프로젝트가 진로탐색에서 주요하게 여기는 핵심역량 다섯 개(김수영 · 조현진, 2019)를 바탕으로 구성했다. 관련해서는 3장에서 자세하게 다룬다.

[표 1-6] 추적조사 개요

시기	지역	인원
내일생각워크숍 시작(1차)	남원(시내 권역)	26명
	남원(지리산 권역)	40명
	진주	20명
합 계		86명
내일찾기프로젝트 종료(2차)	남원(시내 권역)	15명
	남원(지리산 권역)	13명
	진주	6명
합 계		34명

마지막으로, ⑤지역기관 실무자 및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한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학교 안팎의 공간을 넘나들며 내일상상프로젝트가 공동자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인터뷰 조사 대상에서 진주가 빠진 것은 진주 지역에서는 프로젝트 진행에 공교육 교사의 연계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이다. 각 지역이 학교와 연계했던 방식은 3장에서 세부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표 1-7] FGI 인터뷰 조사 대상 개요

구분	소속	인터뷰이
지역기관 실무자	춘향골교육공동체	최OO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	조OO
프로젝트 참여 교사	중학교	유OO
	초등학교	송OO
	중학교	김OO A
	중학교	김OO B

(3) 연구의 한계

본연구는 현장을 기반으로 한 연구로, 사업의 실행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연구 설계가 학술적인 연구와 같이 엄밀한 연구 방법을 적용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조사과정의 표본 설정 및 결과 분석 등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 첫째, 진로체험 경험 및 만족도 조사에서 지역기관이 가지고 있는 교사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표본을 선정했다. 둘째, 추적조사의 경우, 도중하차 청소년은 2차 조사에 참여하지 못했다. 셋째, 청소년 대상 양적 조사의 일반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응답 시간, 시점, 환경 등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아 객관적인 답변이 어렵기 때문이다. 청소년 특성을 반영하여 질문을 최대한 간단하게 작성했는데, 이로 인해, 정확한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추적조사의 경우, 표본 크기가 크지 않아서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변수를 통제하기 어려웠다.

희망리포트

2.
진로체험 활동의 지역사회 연계 현황

1) 진로체험 활동과 사회자본의 역할

2) 지역별 진로체험 자원 공급 현황

3) 지역별 진로체험 자원 경험 및 수요 현황

2. 진로체험 활동의 지역사회 연계 현황

1) 진로체험 활동과 사회자본의 역할

지방의 고령화와 도농 소득격차 증가 문제는 지방의 인구 감소와 함께 제기되어온 문제다. 하지만, 지역 간 격차를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조명한다는 점에서 도시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잣대로 지방을 바라보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야마시타 유스케(2019)는 '지방소멸론'이 경제적인 척도로 통폐합을 진행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을 관리하기 쉬우려고 만든 개념이라고 지적한다.

청소년 관점에서도 지역 간 교육격차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크게 논의되는 부분이 아니다. 게다가 지역 간 격차에 대해 편협한 기준을 가진다는 점에서 유사한 한계를 지닌다. 첫째, 도농 간 교육격차를 이야기하면서 지역 간 청소년을 비교하는 기준을 주로 청소년의 학업 성취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민병성, 2006). 이는 교육격차의 요인 중에서 결과요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중에서도 인지적 영역에 국한된 척도로 볼 수 있다.[7]

두 번째 문제는 교육격차를 분석할 때도 역시 경제적인 요소에 주로 집중한다는 것이다. 교육격차에 대한 투입 요인으로 주로 개인이나 가정 차원에서 결정되는 1인당 사교육비 투자 정도만 고려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상윤(2010)은 교육격차를 크게 계층과 지역 간 격차로 나눠서 분석하는데, 둘 다 주요하게 비교하는 척도를 1인당 사교육비와 학업 성취도로만 축소해서 보고 있다.

---

7) 결과적 요인에 주목하는 이유를 단순히 성과 중심주의로 볼 수는 없다. 이정선(2006)은 농어촌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것이 농어촌 교육 문제가 악순환되는 것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학업 성취도 저하가 농어촌 학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이농현상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교육 시스템이 더 약화한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인지적 영역 이외의 정의적 영역 등에 있어서 교육 결과 차이를 측정할 수 있는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도농 간 차이를 인지적 영역에서만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쉽다고 지적한다.

지역 간 격차에 있어서 인구 감소나 고령화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 없듯이 교육격차도 마찬가지다. 김정섭(2017)은 인구가 감소하면서 저하된 구매력으로 인해 사회서비스에 점점 접근하기 어려워지는 '사회적 배제'가 진정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청소년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비수도권 지역의 청소년이 학업 결과에서 수도권 지역 청소년 보다 뒤처지는 결과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학교를 포함한 여러 교육, 의료,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에 접근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된다.

사회자본에서의 격차가 학업 결과의 차이를 초래한다고 보는 Coleman의 영향을 받아[8] 사회자본이론(Social Capital Theory)을 중심으로 관점이 확장되어왔다(이정선, 2005). Coleman(1966)은 교육격차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을 찾기 위해 학생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학교의 제반 조건, 교사의 특성 등의 정보를 활용했는데, 학교의 영향이 가장 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개인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Coleman(1988)은 사회자본은 단일 주체가 아닌 두 가지 공통 요소를 지니는 여러 주체의 복합체라고 정의했다. 두 가지 요소란, 모든 사회자본은 사회구조의 측면을 포함하고 있고, 그 구조 안에서 행위자의 행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다른 형태의 자본과 마찬가지로, 사회자본은 특정 목표를 달성하게 한다는 점에서 생산적이다. 물적 자본, 인적 자본이 완전히 대체할 수 없듯이, 사회자본도 마찬가지다. 단, 특정 행위이라는 점에서 독특하다.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자본은 다른 행위에게는 쓸모없거나 유해할 수 있다.

Coleman(1988)은 크게 가정 내 사회자본과 가정 밖 사회자본으로 구분한다. 가정 내 사회자본은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 및 관계나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개입하는 정도 등으로 본다. 가정 밖 사회자본은 부모가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맺는 관계를 의미한다. 가정 내 사회자본과 가정 밖 사회자본 모두 자녀의 학업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며, 사회자본이 결국 인적 자본 및 물적 자본과 마찬가지로 교육에서 중요한 자원임을 보여주

8) 사회자본의 이론적 토대로는 크게 Bourdieu, Coleman, Putnam을 꼽을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교육격차 관점에서 사회자본 개념을 정립한 Coleman의 이론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고 있다.

교육격차를 사회자본의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투입-과정-결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는 교육평가 요인에서 지역사회 및 교육정책 등의 배경(context) 변인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학습은 가정이나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지역사회의 사회적 유대망과 규범, 그리고 신뢰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Braatz & Putnam, 1996). 김영철(2003)은 학교 내에서의 격차에서도 지역사회 요구나 교육정책 등의 배경 변인이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교육격차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역할이 점차 강조됐다. 이정선(2004)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 세 가지 차원에서 사회자본 구축을 주장한다. 가정의 사회자본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및 운영하고, 학교 내에서 사회자본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 간의 유대감을 높일 수 있다. 이정선의 연구에서 가장 주목하는 점은 지역사회 차원의 사회자본 구축에 대한 측면인데, 이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전 구성원(교사, 학부모, 전문가, 기관, 단체 등)이 촘촘한 연결망을 갖추고, 다양한 조직 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본다.

정성훈(2019) 역시, 교육격차는 특히 지역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본다. 교육 분야가 산업, 과학, 기술, 사회복지, 인문, 사회 등 다양한 분야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역교육혁신체제(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for Education)'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우리 삶의 터전인 현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진로체험은 청소년들의 삶의 기반인 지역사회에서 현장성의 경험을 만족시킬 수 있는 활동 중 하나다. 하지만, 학교에서 현장의 경험을 제공하기에는 제약이 있어서 지역사회와의 밀접한 연계가 수반된다(최창욱, 2009). 즉, 진로체험 활동은 배경 변인으로서의 지역사회가 청소년의 성장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인 것이다. 개인 및 가정, 학교 단위에서는 해소하거나 학습하기 어려운 요소를 지역사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불균형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교육이 오히려, 지역 간 교육격차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물적 인프라가 적은 지역에

서는 아무리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진로체험 활동을 진행한다고 해도 인프라가 많은 지역의 청소년이 경험하는 활동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음 절에서는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자원을 매핑하여 공유하고 있는 '꿈길' 자료를 통해 지역간 진로체험 관련자원의 불균형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지역별 진로체험 자원 공급 현황: 지역 간 자원 불균형

본 절에서는 지역별로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교육 자원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교육 자원 중에서도 진로체험 활동이 지역사회와 연계 정도가 가장 높다. 따라서 진로체험 활동자원(진로체험처)정보를 제공하는 '꿈길'의 지역별 자료를 중심으로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의 불균형이 실제로 어떠한 양상인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별 초·중·고등학생 인구 대비 체험처 수를 비교한다. 다음으로는 지역별 면적 대비 체험처 수 상황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진로체험처 분야와 유형 등을 통해 체험처의 다양성 측면에서 지역별 비교를 하려고 한다. 분석 결과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청소년 진로체험 자원에서 채워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제언하고자 한다.

(1) 초·중·고등학생 인구 대비 체험처 수

'꿈길'은 초·중·고등학생이 진로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체험처를 매핑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9] 체험처는 소재지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고, 체험처를 이용할 수 있는, 인근 지역 중심의 신청 가능 지역을 표기해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재지 기준으로만 자료를 활

9) 학교밖 청소년 등 학생 이외 인구를 포함하는 전체 청소년의 인구를 기준으로 비교하지 않은 이유는 '꿈길'에서 제공하는 체험처가 현재 초·중·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2-1] 지역별 초 · 중 · 고등학생 대비 체험처 수

지역		초중고등학생 인구* (명)	진로체험처 수 (개)	100명 당 진로체험처 수 (개)
수도권	서울특별시	873,989	1,089	0.12
	경기도	1,493,902	1,849	0.12
	인천광역시	315,419	663	0.21
	소계	2,367,891	3,601	0.15
수도권 제외 특 · 광역시	광주광역시	182,741	500	0.27
	대구광역시	261,287	1,001	0.38
	대전광역시	169,553	1,029	0.61
	부산광역시	313,023	1,596	0.51
	세종특별자치시	48,713	117	0.24
	울산광역시	134,146	1,471	1.10
	소계	1,109,463	5,714	0.52
수도권 제외 도	강원도	156,761	552	0.35
	경상남도	379,231	982	0.26
	경상북도	266,978	805	0.30
	전라남도	194,602	2,104	1.08
	전라북도	204,283	460	0.23
	제주도	80,123	102	0.13
	충청남도	240,045	1,497	0.62
	충청북도	173,489	654	0.38
	소계	1,695,512	7,156	0.42
총계		5,172,866	16,471	0.32

※ 자료: 교육통계-유초중등통계(2019), 꿈길(2020년 2월 28일 접근)

용하고 있다.[10]

초 · 중 · 고등학생 인구 대비 진로체험처의 수를 비교한 [표 2-1]을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인구 규모별 격차는 오히려 수도권 지역에서 상황이 좋지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전라북도[11], 제주도,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기

준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전체 평균인 0.32개 이하로 적은 편에 속하지만, 평균적으로 0.42~0.52 사이로, 인구 기준으로는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도)보다 진로체험처의 개수가 3배 정도 많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1인당 자원의 개수가 더 많은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 수도권 지역에 비해 비수도권 지역에서 지역사회와 자원이 더 잘 형성되어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까? 단순히 그렇게 보기에는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지역 간 차이를 보다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음 두 절에서는 면적 기준에서, 그리고 체험처 분야의 다양성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면적 대비 체험처 수

지역간 면적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인 [표 2-2]에서는 지역 간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다. 면적 대비 체험처 비교에서 서울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의 체험처가 발굴된 것으로 나타난다. 같은 수도권 안에서도 경기도(0.18개)와 인천광역시(0.57개)는 면적당 개수가 1개 이하로 현저하게 감소한다. 그리고 수도권 제외 광역 단위 지역에서는 1㎢ 당 체험처 수가 평균 1.26개지만, 도 단위 지역에서는 평균 0.09개의 체험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면적 기준의 비교를 통해서는 체험처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성을 유추할 수 있다. 인구 대비 체험처의 수는 수도권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상황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비수도권 지역이 면적 대비 체험처의 수가 서울보다 현저히 낮은 것은 체험처와의 거리가 먼 곳에 있는 청소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실제 비수도권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면, 대부분 학생을 포함한 인구가 도심에 모여 있고, 체험처도 지역의 사회 · 경제적

10) 신청 가능 지역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인근 지역이 아니라면 실제 활용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상남도 지역 체험처의 신청 가능 지역이 전국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장거리 이동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제한적인 비수도권 지역의 청소년 특성을 고려하면, 실제 활용 가능한 범위는 인근 지역일 것이다. 따라서, 소재지 기준으로 분석해도 현실적으로 큰 오류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11) 내일상상프로젝트 참가 지역인 전라북도와 경상남도는 수도권 제외 도 단위에서는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10명 당 진로체험처 수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표 2-2] 지역별 면적 대비 체험처 수

지역		면적(Km²)	진로체험처 수 (개)	1Km² 당 진로체험처 수 (개)
수도권	서울특별시	605.60	1,089	1.80
	경기도	10,381.10	1,849	0.18
	인천광역시	1,156.40	663	0.57
	소계	12,143.10	3,601	0.30
수도권 제외 특 · 광역시	광주광역시	501.20	500	1.00
	대구광역시	539.90	1,001	1.16
	대전광역시	883.50	1,029	0.61
	부산광역시	993.50	1,596	1.61
	세종특별자치시	465.50	117	0.25
	울산광역시	1,144.60	1,471	1.29
	소계	4,528.20	5,714	1.26
수도권 제외 도	강원도	10,381.10	552	0.05
	경상남도	11,815.80	982	0.08
	경상북도	19,128.70	805	0.04
	전라남도	15,434.20	2,104	0.14
	전라북도	8,131.30	460	0.06
	제주도	3,051.30	102	0.03
	충청남도	8,744.10	1,497	0.17
	충청북도	7,406.90	654	0.09
	소계	84,093.40	7,156	0.09
총계		100,765.00	16,471	0.16

※ 자료: 꿈길(2020년 2월 28일 접근)

인 자원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있어서, 농산어촌 청소년이 느끼는 소외감은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

국내 모든 지역을 이러한 기준으로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지역인 남원시와 진주시에 한정해서 동 지역과 읍 · 면 지역의 자원 현황을 보면([표 2-3]

참고), 대부분 자원이 동 지역에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읍 · 면 지역에 있는 진로체험처의 분야는 대부분 농업에 국한되어 있다. 같은 시 안에서도 읍 · 면 지역의 청소년이 느끼는 불균형은 동 지역에 있는 청소년이 느끼는 정도와 큰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남원시와 진주시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역에서 나타나는 양상일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청소년 · 청년 인구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읍 · 면 지역 청소년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면적 기준의 비교를 통해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는 접근이 필요하겠다.

[표 2-3] 남원시와 진주시의 동 지역 및 읍 · 면 지역 진로체험처 현황

지역		진로체험처 수 (개)
남원	동 소재	19
	읍 · 면 소재	2
	계	21
진주	동 소재	122
	읍 · 면 소재	11
	계	133

(3) 진로체험처 분야 비율

앞서 남원시에서 읍 · 면 지역의 진로체험처가 대부분 농업 분야라는 점을 확인한 것에 착안해서 이번에는 비수도권 지역의 현황을 자원의 내용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꿈길'에서 제공하는 자료에는 체험처의 분야를 토목, 공예, 문화 · 예술 등 140여 개로 분류했다.

'꿈길' 제공 자료에 따라 지역별 진로체험처의 직무 및 학과 분야 개수를 정리한 [표 2-4]를 보면, 비수도권 지역에서 비교적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도권 지역이 평균 약 91개의 가장 다양한 분야의 진로체험처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수도권을 제외한 특 · 광역시에서는 평균 약 76개, 도 단위에서는 약 79개가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실제 비수도권 지역 청소년이 느끼는 불균형과 괴리가 있다. 광역시·도 단위에서 집계된 자료이므로, 청소년의 실제 생활반경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분야와 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표 2-4] 지역별 진로체험처 직무/학과 분야 개수

지역		직무/학과 분야 개수
수도권	서울특별시	98
	경기도	110
	인천광역시	66
	수도권 평균	91.33
수도권 제외 특·광역시	광주광역시	58
	대구광역시	95
	대전광역시	89
	부산광역시	105
	세종특별자치시	34
	울산광역시	77
	수도권 제외 특·광역시 평균	76.33
수도권 제외 도	강원도	60
	경상남도	90
	경상북도	87
	전라남도	103
	전라북도	60
	제주도	29
	충청남도	118
	충청북도	87
	수도권 제외 도 평균	79.25
전체 평균		80.35

※ 자료: 꿈길(2020년 2월 28일 접근)

이를 파악하기 위해 다시 내일상상프로젝트 참여 지역인 남원시와 진주시를 살펴보면, 상황은 심각하다. 남원에는 12개, 진주에는 54개 분야의 진로체험처가 있다. 남원의 초·중·고등학생 8,327명[12]이 8개 분야(경제학, 공예, 국악, 농업, 법률, 식음료조리서비스, 학교교육, 항공운전·운송) 안에서 체험 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전체 체험처 수가 1개이니, 분야마다 평균 2~3개의 체험처만 있는 셈이다. 진주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진로체험처의 절대적인 수가 적은 모든 지역에 해당하는 문제일 것이다.

제일 처음 비교했던 인구 대비 진로체험처 수 기준에서는 남원시(0.25) 역시 서울시(0.12)보다 나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확대경을 들이댈수록 상황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하다. 점차 다양해지는 직업군에 따라 세분화하고 있는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다양한 자원이 부족한 것이라 어쩔 수 없지만, 인구가 적은 지역의 청소년이라고 해서 꿈의 다양성을 제한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렇게 관찰되는 질적인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표 2-5] 남원시와 진주시의 진로체험처 직무/학과 분야 개수

지역	직무/학과 분야 개수
남원시	8
진주시	48

※ 자료: 꿈길(2020년 2월 28일 접근)

지금까지 비수도권 지역의 청소년은 양적, 질적으로 열악한 진로체험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수도권-비수도권 지역사이에 개인 및 가정이나 학교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지역 간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수도권 지역, 특히 규모가 작은 지역으로 갈수록 진로체험 자원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초·중·고등학생 인구 대비 상대적으로 수가 적은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물리적인 접근성이

12)남원시 교육지원청 통계 (http://jbnwe.kr/index.jsp?SCODE=S0000000444&mnu=M001002)

낮은 것과 절대적인 양이 적음으로 인해 지역내에서 체험이 가능한 분야의 다양성이 낮은 것이 문제로 나타난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의 근본적인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필요한 진로교육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강화, 지역균등 발전 등을 통한 체질적인 개선이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청소년들은 지역 간에 존재하는 자원 불균형으로 인해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을까?다음 절에서는 지역자원의 연계가 수반되어야만 하는 진로체험 활동에 대해 청소년의 경험 및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 결과를 통해, 구조적인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발견하고자 한다.

3) 지역별 진로체험 자원 경험 및 수요 현황: 사회자본의 중요성

본 절에서는 비수도권 지역의 청소년들이 교내외 진로체험 교육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고,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또한, 어떤 진로체험 교육을 원하는지 인식 및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행 진로체험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발견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청소년의 만족도를 높이고, 실질적으로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는 진로체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도출해보고자 한다.

(1) 교내외 진로체험 활동 경험 및 만족도 비교

교내 진로체험 교육을 경험한 청소년 비율은 각 지역에서 차이가 있지만, 세 지역 모두 전체 응답자의 90%를 넘는 청소년이 경험해본 것으로 나타난다. 진로교육법을 바탕으로 교내에서 진로체험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로 보인다. 반면에, 교외 진로체험 교육을 경험한 청소년 비율은 역시 각 지역에서 차이가 있지만, 세 지역 모두 전체 응답자의 30% 안팎으로 나타났다.

[표 2-6] 내일상생프로젝트 참가 지역 청소년의 교내 진로체험 교육 경험

남원(시내 권역)	남원(지리산 권역)	진주
중학생 298명	중학생 146명	중학생 221명
	고등학생 27명	고등학생 190명
총 298명 (90.3%)	총 173명 (98.3%)	총 411명 (90.3%)

[표 2-7] 내일상생프로젝트 참가 지역 청소년의 교외 진로체험 교육 경험

남원(시내 권역)	남원(지리산 권역)	진주
중학생 130명	중학생 83명	중학생 92명
	고등학생 18명	고등학생 42명
총 130명 (29.1%)	총 101명 (22.6%)	총 134명 (30.0%)

세 지역 모두 격차가 크지만, 특히, 지리산 권역에서는 그 차이가 더 크다. 전체 응답자의 98% 이상이 교내 진로체험 교육을 경험한 반면에, 교외 진로체험 교육을 경험한 청소년은 전체 응답자의 22% 정도에 불과하다. 남원 지리산 권역에서는 청소년 대부분이 진로체험 교육을 학교 안에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꿈길' 자료에서는 지리산 권역에 분포하고 있는 자원의 수와 다양성이 현저하게 열악했다. 따라서, 교내 진로체험활동에서 높은 경험 비율을 나타내는 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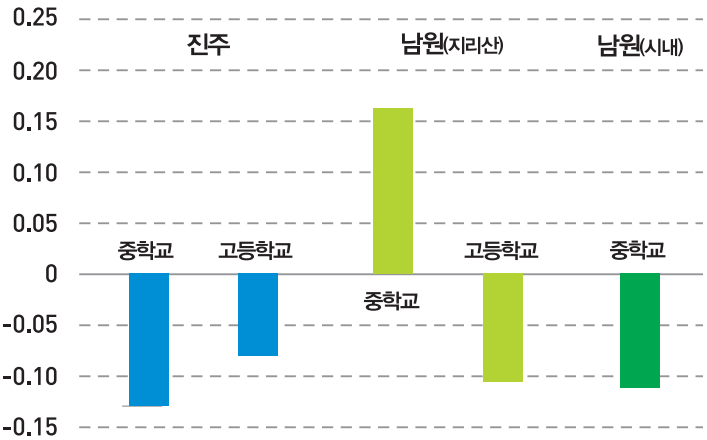
만족도에서도 교내 진로체험 교육과 교외 진로체험 교육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전반적인 만족도를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에서 '매우 만족한다' 까지 총 다섯 가지 범주로 설문한 결과, 교내 진로체험 교육은 3.5점, 교외 진로체험 교육은 3.7점으로 교외 진로체험교육에 대해 교내 진로체험 교육보다 약간 더 높은 만족감을 보인다.

세 지역 전체 평균 만족도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지만, 지역별로 만족도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차이를 관찰할 수 있다. [그림 2-1]은 교내 진로체험 활동의 만족도에 대해 표준화된 수치로 비교한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결과를 살펴보면, 남원 지리산 권역의 중학생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인 덕에 평균적인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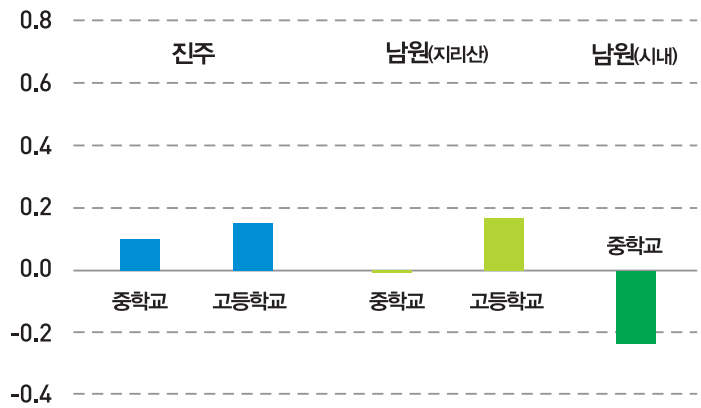
지역 학생들과 남원 지리산 권역의 고등학생, 남원 시내 권역의 중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교외 진로체험 교육의 만족도는 교내 진로체험 교육의 만족도와 전반적으로 반대 양상을 띤다. [그림 2-2]은 교내 진로체험 활동의 만족도에 대해 표준화된 수치로 비교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그림 2-1]의 교내 진로체험 활동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만족감을 표했던 진주 지역 학생들에게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반면, 남원 시내 권역 학생들은 동일하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교외 진로체험 활동에 대한

[그림 2-1] 지역 및 학교급에 따른 교내 진로체험 전반적인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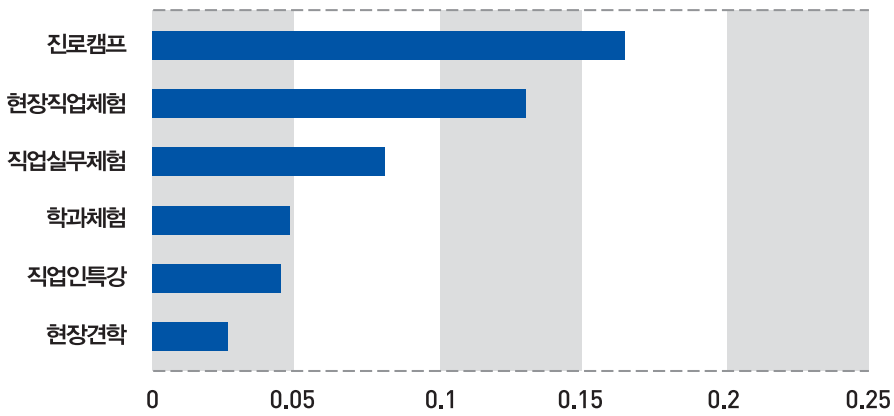
[그림 2-2] 지역 및 학교급에 따른 교외 진로체험 전반적인 만족도



부정적인 만족도가 교내 진로체험 활동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남원 지리산 권역에 학생들이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교내 진로체험에 대해 상당한 만족감을 표한 것과는 달리 그 정도가 상당히 낮아진 것을 눈여겨볼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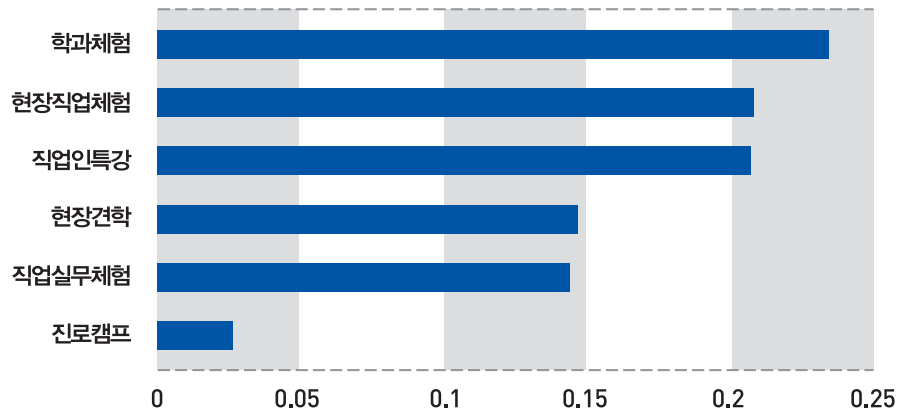
진로체험 활동 유형별 경험 횟수와 만족도를 묻는 문항도 있었는데, 이 둘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활동에 참여할수록 만족도가 낮아지는 결과가 나온다면 진행해 온 진로체험 활동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더 많은 교내 진로체험 활동을 경험한 학생일수록 더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은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관계만을 살펴본 것이므로 교내 진로체험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이 교내 진로체험 활동에 계속해서 참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본 분석은 교내 진로체험 활동 중 어떤 활동이 학생들의 경험 횟수와 만족도 사이에 높은 상관성을 가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림 2-3]은 교내 진로체험 활동의 경험횟수와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가로축에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갖는 상관관계의 강도가 표시되어 있다. 교내에서 진행한 진로캠프와 현장직업체험이 학생들의 경험 횟수와 만족도 사이에 높은 상관성을 갖고 있었으며, 현장견학이나 직업인 특강에 있어 서는 더 많은 경험을 하더라도 더 높은 만족도를 보이지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3] 교내 진로체험 활동의 경험 횟수와 만족도의 상관관계



교외 진로체험 활동에서의 경험 횟수와 만족도의 상관관계는 교내 진로체험 활동에 비해 전반적으로 약 2배 정도 강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림 2-4]는 교외 진로체험 활동의 경험 횟수와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가로축에는 0에서 1의 값을 갖는 상관관계의 강도가 표시되어 있으며, 교내 진로활동과의 직접적인 비교를 위해 그 범위를 똑같이 설정하였다.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교내 진로체험에서 가장 상관성이 높았던 진로캠프의 경우 교외 진로체험에서는 가장 낮은 상관성을 보이는 점이다. 교외 진로체험 활동의 경험 비율에서 다른 활동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결과와 함께 해석할 때, 교외 진로체험 활동이 진행될수록 학생들이 만족하지 못할 만한 요인이 있었다고 보일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절대적인 진로캠프 횟수를 고려할 때, 교내 진로체험의 경우 최대 12번 경험한 학생이 있는 반면, 교내 진로체험의 경우 가장 많이 참여한 학생이 총 4회이기 때문에 교외 진로캠프 자체에서 그 요인을 찾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학과체험의 경우에는 교내 진로활동과 교외 진로활동 모두 가장 많이 경험한 횟수가 5회로 같다는 점에서 만족도와의 상관성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교외 진로체험 활동에서 경험한 학과체험이 교내 진로체험 활동에 비해 체험이 진행될수록 학생들이 더 만족했을 가능성이 시사한다. 현장직업체험은 교내와 교외에서 모두 비슷한 수준의 상관성을 보였다. 직업인 특강의 경우는 상관성이 교내와 교외에서 약 4배 정도 차이가 나지만, 교내에서 경험한 학생이 최대 16회이고, 교외에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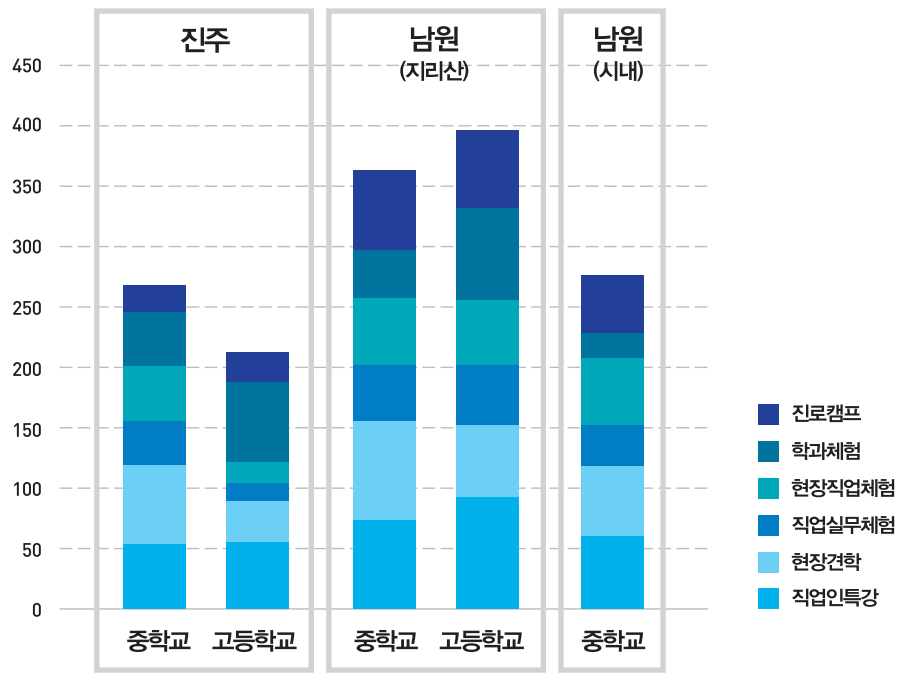
[그림 2-4] 교외 진로체험 활동의 경험 횟수와 만족도의 상관관계



한 학생은 최대 6회인 점을 고려하면 경험 횟수와 만족도 간의 상관성을 직접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다.

[그림 2-5]는 지역 및 학교급에 따른 교내 진로체험 활동 영역별 경험 비율을 보여준다. 이 수치는 교내 진로체험 활동에 참여한 학생 중 지역과 학교급 별로 6개 영역에 대한 상대적인 경험 비율을 나타내므로 해석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교내 진로체험 활동의 평균 경험횟수를 절대적인 수치로 살펴보면 최대 3회가 넘지 않는다. 6개의 교내 진로체험 활동 중 학생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활동은 직업인 특강이었다. 이어 현장견학, 학과체험, 현장직업체험, 직업실무체험 순으로 학생들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원 지리산 권역 학생들은 상당히 높은 비율로 교내에서 이루어진 진로체험 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원 지리산 권역의 고등학생들의 93%가 직업인 특강을 경험한 것에 비해 다른 지역 학생들의 경우 약 60% 정도로 차이가 있었다. 현장견학에 있어서는 진주 지역 고등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절반 이하의 경험을 하였다. 직업실무체험은 남원 지리산 권역 고등학생들이 다른

[그림 2-5] 지역 및 학교급에 따른 교내 진로체험 활동 영역별 경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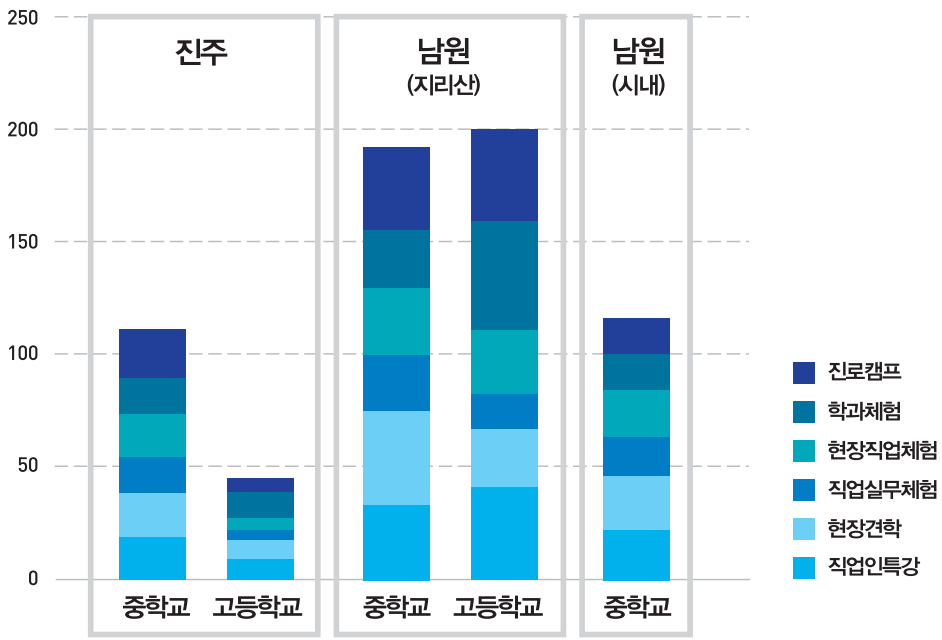


경험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경험하였으며, 현장직업체험은 남원 지리산 권역 고등학생을 포함하여 프로젝트에 참여한 중학생들의 경험률이 높았다. 학과체험 비율은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캠프는 남원 지역 학생들의 참여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높았다.

[그림 2-6]은 지역 및 학교급에 따른 교외 진로체험 활동 영역별 경험 비율을 보여준다. 6개의 교외 진로체험 활동에는 남원 지리산 권역 학생들의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교외 진로체험 활동의 평균 경험횟수가 1회에서 3회를 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험 비율을 과대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각 체험에 대한 상대적인 비율을 살펴보면 대부분 약 20% 내외이며, 직업실무체험에 있어서만 약 13%로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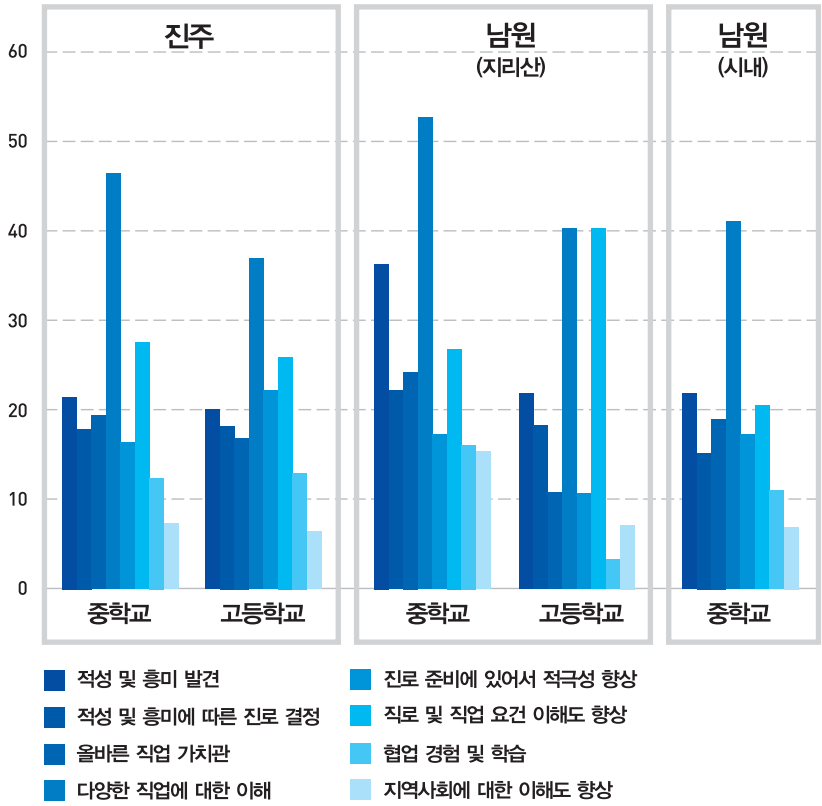
교내 진로체험 활동은 참여한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평균 70%가 넘는 학생들이 교내 진로체험 활동을 경험하고, 다양한 직업과 직업 요건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그림 2-6] 지역 및 학교급에 따른 교외 진로체험 활동 영역별 경험 비율



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적어도 교내 진로체험 활동은 학생들이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이해도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유의미한 역할을 해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고등학생보다 중학생들에게서 직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협업 경험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응답은 모든 참여자에게 있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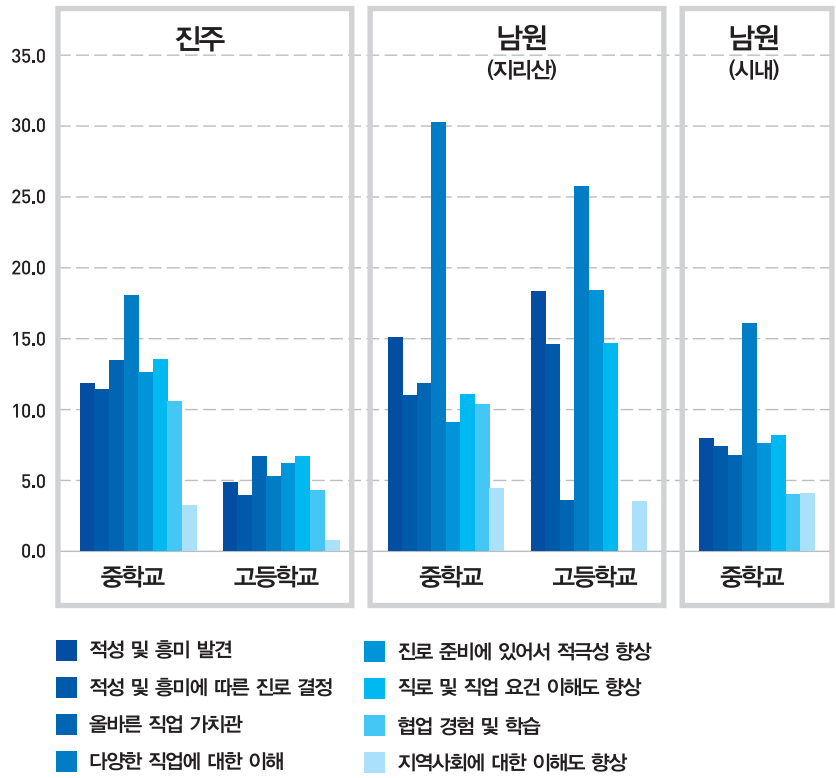
[그림 2-7] 지역 및 학교급에 따른 교내 진로체험 활동 만족 요인 비율



[그림 2-8]은 지역 및 학교급에 따른 교외 진로체험 활동 만족 요인 비율을 나타낸다. 교내 진로체험 활동에 비해 절대적인 요인별 만족도는 낮아졌지만, 같은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교외 진로체험 활동에서도 다양한 직업에 대한 이해와 진로 및 직업 요건 이해도가 향상된 점을 학생들은 교외 진로체험 활동을 한 후 가장 만족스러운 요인으로 꼽고 있다. 이어서 진로 준비에 있어서 적극성이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나오는 것은 교외 진로체험 활동

이 학생 개개인이 더욱 적극적으로 진로를 찾도록 하는 데 상대적으로 실질적인 기여도가 높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여전히 협업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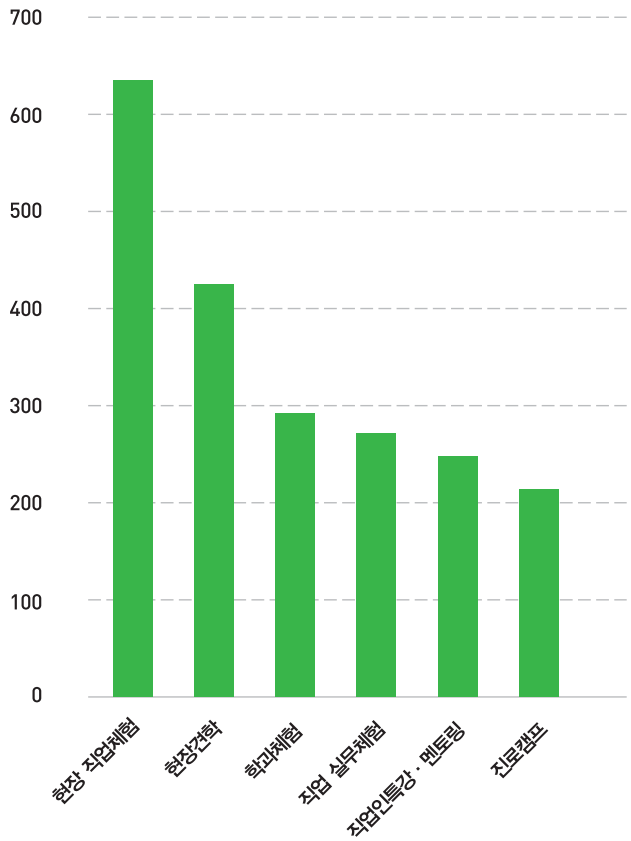
[그림 2-8] 지역 및 학교급에 따른 교외 진로체험 활동 만족 요인 비율



(2) 진로체험 활동 수요

[표 2-8]는 진주 및 남원 지역 학생들이 앞으로 더 경험하고 싶은 진로체험 활동에 대한 응답을 요약한 결과이다. 가장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 직업체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다음으로 바라는 활동도 '현장견학'이라는 점에서 우리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이 실제 직업 세계를 경험하는 것을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모의 직업 체험인 '직업 실무체험'이나 '학과 체험'과 같은 간접적인 직업 세계 경험과 관련한 응답이 전체 학생의 각각 12%, 14%에 해당했다. 가장 낮은 응답을 보인 활동은 '진로캠프'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게임학교', '축구캠프', '아프리카 TV 방송', '과학 관련 진로' 등이 있었다.

[그림 2-9] 진주 및 남원 지역 권역 학생들이 바라는 진로체험 활동



앞 절에서 살펴본 유형별 만족도와 경험 횟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 현장직업체험은 횟수와 만족도가 비례하는 편이지만, 현장견학은 상관관계가 낮은 편이었던 점을 반영하면, 청소년들의 수요가 높은 유형을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 방향을 찾을 수 있다. 현장견학은 횟수를 늘리기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해 보이고, 현장직업체험은 현재와 비슷한 내용 안에서 빈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청소년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2-8] 진주 및 남원 지역 권역 학생들이 바라는 진로체험 활동

구분	1순위		2순위		총합	
직업인 특강 · 멘토링 (강연형 · 대화형)	156	12.0%	91	7.0%	247	11.8%
현장견학	222	17.0%	205	15.7%	427	20.4%
직업 실무체험 (모의 직업체험)	145	11.1%	128	9.8%	273	13.0%
현장 직업체험 (실제 직업체험)	375	28.8%	262	20.1%	637	30.4%
학과체험	117	9.0%	178	13.7%	295	14.1%
진로캠프	75	5.8%	140	10.7%	215	10.3%

유형별 구분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찾기 위해 진주 및 남원 지역 학생들이 진로체험 활동에 바라는 점을 중복하여 최대 2개까지 선택하는 방식으로 물어봤다. [표 2-9]는 그 결과이다. 진주 및 남원 지역 학생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직업군이 더 다양' 한 것이었다. 앞 절에서 확인했듯이 교내외 진로체험 활동의 만족 요인으로 다양한 직업을 이해하고, 직업 요건을 알게 된 것이 가장 높았는데도 여전히 청소년들은 다양한 직업군을 체험할 수 있는 진로체험 활동을 원하고 있다는 점은 점차 다양해지는 직업 세계를 진로체험 교육을 통해 경험해보고 싶은 청소년들의 욕구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내가 원하는 진로체험 활동을 주도적으로 선택할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는 응답이 뒤를 이었고, '또래 · 멘토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협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나를 잘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꽤 있었다.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바라는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으면 좋겠다'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우선하지 말고 활동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각 직업에서 실제로 하는 일을 알고 싶다'는 것 등이 있었다.

[표 2-9] 진주 및 남원 지역 학생들이 바라는 진로체험 활동

진로체험 활동에서 이런 것을 바란다	응답자 수	비율
나를 잘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362	17.2%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직업군이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	572	27.2%
내가 원하는 진로체험 활동을 주도적으로 선택할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527	25.1%
또래 · 멘토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협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395	18.8%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187	8.9%
바라는 점이 없다.	58	2.8%

두 결과를 종합하자면, 청소년들은 다양한 직업 세계의 실제 모습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한다. 주도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선택하고, 그 과정에서 또래 및 멘토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고 있다. 하지만, 인적 · 물적 자본이 부족한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까? 물적 자본을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해 진로체험 활동을 추진, 운영하고 있지만, 점차 다양해지는 개인의 욕구들을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으로 보인다.

(3) 소결

세 지역의 청소년에게 교내외 진로체험 활동에 대한 인식 및 수요조사 결과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는 점은 교내 체험 활동과 교외 체험 활동 사이의 차이점이다. 세 지역 모두 교외 진

로체험 활동을 경험한 청소년 비율이 교내 진로체험 활동 경험 청소년보다 1/3 이상 적은 반면, 만족도는 교외 진로체험 활동이 교내 체험 활동보다 높다. 전반적인 만족도에서도 교외 진로체험 활동이 약간 더 높으며, 유형별 만족도에서 그 차이가 더 잘 드러난다. 전반적으로 교외 진로체험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의 정도가 교내 활동보다 적다. 이를 통해 진입장벽이 높은 좋은 자원이 소수에게만 집중되고 있을 가능성을 짐작해볼 수 있다.

유형별 경험횟수와 만족도의 상관관계에서 교외 체험 활동이 교내 체험 활동보다 더 강한 관계(약 2배)를 가지는 현상은 자원 집중 문제의 심각성을 더 드러낸다. 교내 체험 활동에서 청소년들이 만족도 및 수요가 낮은 직업인 특강을 가장 많은 청소년이 경험하고, 반대로 만족도 및 수요가 높은 현장직업체험을 경험하는 청소년은 적다. 교외 체험 활동에서도 여전히 직업인 특강을 경험하는 청소년 비율이 다른 유형보다 높은 편이지만, 청소년들의 수요가 높은 유형의 경험 비율이 교내에서보다 높아진다.

단, 남원 지리산 권역의 경우, 정반대로 교외 체험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의 정도가 교내 체험활동에 비해 작아진다는 점이 두 번째로 드러난 결과다. 만족도뿐 아니라, 진로체험 활동 경험 비율도 다른 두 지역에 비해서 약 8%높은 편이다. '꿈길'에서 읍·면 지역에 해당하는 지리산 권역에 나타나는 자원의 수와 다양성이 다른 두 지역보다 더 열악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그 차이가 더 유의미하다.

마지막으로, 교내외 활동 모두 협업을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나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될 수 있는 요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협업 능력과 공동체 의식은 내일상상프로젝트가 진로 탐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다섯 가지 역량에 포함된다.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자아를 더 잘 인지할 수 있고, 사회적 자아를 형성하고 사회적 관계를 확대할 수가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이 지역사회 안에서 이뤄지면서 자신의 역할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터를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인지할 수가 있다. 그런데, 현행 진로체험 활동에서는 이러한 역량을 키우는 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진로체험 활동 경험 및 수요조사를 통해 발견한 세 결과를 사회자본의 관점에서 다시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교내-교외 활동 간 경험의 차이에는 가정 내, 가정 밖 사회자본의 영향이 있다. 가정 내에서는 부모가 교외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청소년

의 경우, 참여가 더 수월하다. 또, 학교 안에서 친구나 교사의 소개로 참여할 수도 있다.[13]

둘째, 지리산 권역에서 보인 예외적인 결과는 해당 지역이 가진 학교와 지역사회 물적 자원 조건을 고려하면, 더욱 의미가 있다. 지리산 권역 소재 학교는 총 5개로, 중학교 4개와 고등학교 1개가 있다. 각 학교는 학년 당 1개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어,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특성을 가진다. 또한, 앞서 살펴봤듯이 해당 지역 내 진로체험 활동 자원은 턱없이 열악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리산 권역의 진로체험 활동에서 양적(경험 횟수)·질적(만족도)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은 지역사회가 가진 사회자본의 영향으로 보인다. 이정선(2004)은 농어촌 지역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기대되는 요소로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자본을 꼽았다. "구성원 간 관계가 밀접하며 따라서 사회자본의 구축과 활용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리산 권역은 1990년대 말부터 공동체의 가치에 공감하는 이들의 귀농·귀촌을 통해 형성된 지역으로 신뢰, 규범, 연결망 등 사회자본이 많은 곳이다.[14]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정 안팎에서 사회자본이 진로체험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진로체험 활동에서는 협업의 기회나 지역사회의 이해도를 높일 기회가 가장 적다. 즉, 청소년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부족한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의미를 사회자본 관점에서 조명하고, 동시에 내일상상프로젝트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체계가 갖춰지면 좋을지 다루고자 한다. 현행 진로체험 활동에서는 충족시키지 못하는 청소년의 수요를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통해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지, 교외 활동에서 발견되는 참여 문턱을 내일상상프로젝트에서는 어떻게 완화시키는지 보려고 한다. 또한, 기존 진로체험 활동에서 일어나는 지역사회 연계와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함께 보고자 한다.

---

13) 이러한 양상은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진주(24.5%)와 남원 시내권역(20.4%)에서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한 동기로 가장 많았던 응답이 부모 및 선생님 소개였다. 나머지 항목으로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서', '내일상상프로젝트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내 관심사와 적성을 발견하고 싶어서', '우리 지역에서 내 역할을 찾고 싶어서', '진로에 대한 조언을 해줄 멘토를 찾고 싶어서', '내가 해보고 싶었던 주제로 활동을 해보고 싶어서', '자원봉사 점수를 받을 수 있어서', 친구가 함께 가자고 해서 가 있었다.

14) 이 가설을 바탕으로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사회자본 측정 등을 통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희망리포트

3.
내일상상프로젝트와 지역사회 및 학교의 연계

1)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지역사회 연계

2) 내일상상프로젝트의 학교 연계

3. 내일상상프로젝트와 지역사회 및 학교의 연계

1) 내일상상프로젝트와 지역사회 연계

앞서 설명했듯이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상상학교, 내일생각워크숍, 내일찾기프로젝트로 이어지는 세 개의 모듈을 바탕으로 지역의 상황과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게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게 되어있다([그림 3-1] 참고). 2차연속사업부터는 참가하는 세 지역에서는 지역기관이 직접 모듈을 조합하여 수행하는 데 유연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확산하는 과정에서 각 모듈이 가지는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이기도 하다. 이에 각 지역에서 1년 동안 진행했던 상상학교부터 내일찾기프로젝트까지의 진행과정을 톺아보고 특히, 지역사회와의 연계 관점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림 3-1] 내일상상프로젝트 전체 진행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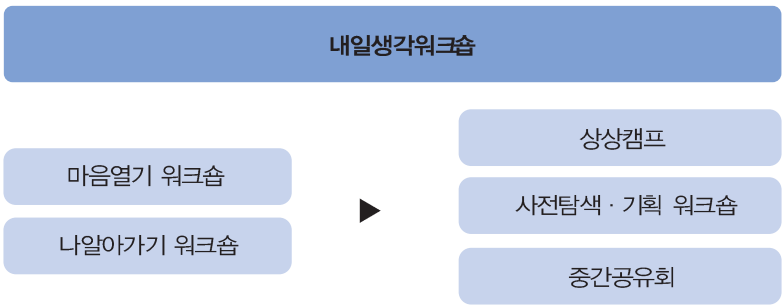
(1) 남원 시내 권역

활동 경험이 적은 중학생이 중심이 되었던 남원 시내 권역은 1차년도에는 상상학교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는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내일상상프로젝트 참여 동기를 형성해주는 상상학교와 다르게 접근했기 때문이다. 청소년 모집을 교사를 통해서 진행한다는 것과 함께 활동 경험이 적거나 거의 없는 청소년들에게 직업 및 진로를 주제로 하는 내용의 활동을 수행하기 이전에 관계 형성 및 자존감 향상 등을 목표로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내일생각워크숍을 긴 호흡으로 진행하면서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기초 역량을 쌓아 올리는 데 집중했다. 사전탐색 워크숍 이전에 '마음열기'와 '나 알아가기'라는 주제로 진로탐색의 기본이 되는 자아이해 및 또래 간 소통능력을 기본적인 단계에서부터 훈련하는 활동을 했다. 또한, 자발성을 발현할 경험이 적었던 청소년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진로 탐색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더라도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활동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15)]

이러한 프로그램 구성은 개인적 ·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참여 문턱이 있는 교외활동의 한계를 해소하고 학교 밖에서도 형평성의 측면에서 보완하려는 고민의 결과라는 점에서

[그림 3-2] 남원 시내 권역 내일생각워크숍(2단계) 진행 개요



15)메이커스페이스 체험, 볼링, 미술관 탐방, 떡볶이 만들기 등 5회의 활동이 진행되었다. 청소년들의 욕구가 기존 진로교육이 답습하는 '체험' 방식의 활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진로교육이나 그 밖의 기회에 노출된 경험이 적은 청소년의 경우, 제한된 경험 속에서 자신들의 활동을 설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나타낸다.

참고할 만하다. 다른 민간 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외 프로그램에서 배제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청소년 집단에 접근하는 방법을 내일상상프로젝트 안에서 모색한 과정을 통해 내일상상프로젝트의 다양한 방식의 적용과 확산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모듈에 없던 기초 과정의 워크숍(마음열기 워크숍, 나알아가기 워크숍)을 추가한 것뿐만 아니라, 상상캠프부터 기획워크숍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내용이 관계 형성과 자아 이해 수준에서 이뤄진 것은 다음 단계인 내일찾기프르젝트에서 주제를 선정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워크숍의 내용이 프로젝트의 주제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은 다른 두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찰된다. 이에 대해서는 각 지역부분에서 다룰 예정이다.

[표 3-1] 남원 시내 권역 내일찾기프로젝트(3단계) 활동 내용

팀명	프로젝트 내용
일상탈출	여행코스를 직접 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을 통해 남원 지역 내에서 또래 청소년을 위한 현장체험학습 코스를 개발하여 시청 관광과에 제안
행복을 전하는 악세사리	악세사리를 디자인해 제작하고, 지역 내에서 판매한 수익금을 활용해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동생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활동을 마련
W.S. (우리들의 축구)	정기 만남을 통한 연습, 지역의 청소년 축구동호회와 시합, 인근의 프로축구 경기 관람 등을 통해 지역 내 또래 청소년과의 교류

남원 시내 권역 청소년들의 프로젝트 주제는 주로 취미나 일상생활과 관련된 활동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진로'에 대한 개념과 관점에 따라 상반되는 평가를 할 수 있다. 직업인으로서의 진로 탐색에 방점을 두는 관점에서는 활동 내용이 빈약해 보일 수 있다. 반면에,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자발성'을 진로 탐색에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본다면, 스스로 활동할 동기 자체가 낮은 청소년들이 3년을 목표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

자발성 향상에 집중하여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탓에 상대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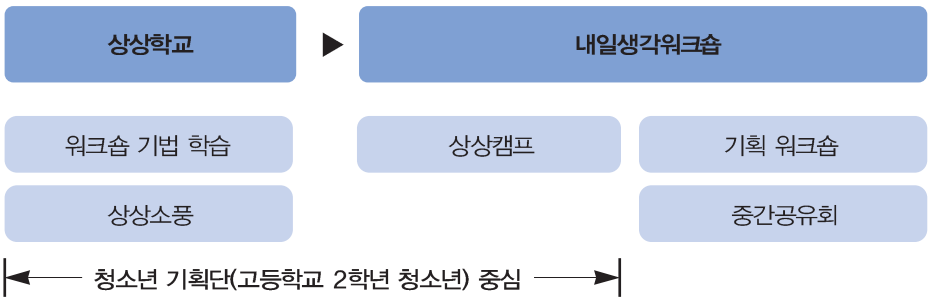
는 비교적 낮게 나타난다. '행복을 전하는 악세사리' 팀은 직접 제작한 악세사리 판매 수익금으로 지역아동센터 활동으로 연결하는 계획을 수행했다. 반면에, 주도적으로 여행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경험을 통해 남원 지역의 탐방 코스를 계획하고자 했던 '일상탈출' 팀은 결과물로 도출하고자 했던 바를 수행하지 못하면서 지역사회와의 연계부분이 없었다. 'W.S.' 팀은 활동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길잡이 교사를 지역 내에서 발굴하고 지역 내 청소년들과 시범경기를 하는 수준에서 그쳐야 했다.

(2) 남원 지리산 권역

남원 지리산 권역에서는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 2년 동안 내일상상프로젝트와 유사한 성격의 활동을 진행하여 의지와 역량을 충분히 쌓은 고등학교 2학년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1단계 상상학교에서부터 스스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또래 청소년 참가자들을 모집하는 홍보물을 직접 제작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강연자 및 사람책을 불러 이야기를 듣는 기존 상상학교 방식이 아닌, '소풍' 요소가 가미되어 직접 청소년 활동 선진지(완주 고산 청소년센터 '고래')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청소년 기획단은 2단계 내일생각워크숍 초반까지 프로젝트 진행에 주도적인 위치에서 워크숍 운영 및 내용을 학습하기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상캠프를 직접 기획하고 진행했다. 남원 시내 권역에서는 활동 경험이 적은 중학생 청소년에게 초점을 맞췄다면, 지리산 권역에서는 활동 역량이 높은 고등학생 청소년들을 중심에 두고 진행했다는 점에서 내일상상프로젝트가 청소년의 활동 경험과 역량에 따라 모듈을 다르게 구성하여 적용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3] 남원 지리산 권역 상상학교(1단계) 및 내일생각워크숍(2단계) 진행 개요



다만, 2단계 내일생각워크숍 이후, 내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청소년 기획단의 활동이 약해지고 결국에는 3단계 내일찾기프로젝트 활동을 마치지 못하게 되었던 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외적인 요인으로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치러야 하는 시기가 다가옴으로써 피할 수 없는 학업 부담을 꼽을 수가 있다.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고 있지만, 여전히 입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현행 교육과정과 제도 아래에서는 고등학생들의 학업 부담은 활동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을 확인한 셈이다. 더군다나 2019년 8월, 수능 중심의 입시 과정을 보다 강조한 교육부의 방침은 교과 외 활동을 위축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특정 대상에 집중해 모듈을 구성했기 때문에 이들이 도중 하차한 이후에 남은 청소년들은 1, 2단계에서 상대적으로 필요한 학습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럼에도 해당 권역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강한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 정도는 높은 편이었다. 지리산 권역의 3단계 내일찾기프로젝트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 점을 알 수 있다. 세 프로젝트 모두 활동공간, 주제설정, 활용 자원, 결과물 등 여러 층위에서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맞닿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이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않았던 부분에서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 예를 들면, '응답하라 2005' 팀은 시장에 사과잼을 판매하는 것을 허가받는 과정에서 시장상인회로부터 후속 활동인 벽화 그리기 재료를 구매할 예산을 지원받기도 했고, 벽화 그리기 활동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길잡이 교사를 지역사회 안에서 새

롭게 발굴할 수 있었다.

[표 3-2] 남원 지리산 권역 내일찾기프로젝트(3단계) 활동 내용

팀명	프로젝트 내용
응답하라 2005	지역특산물인 사과로 잼을 만들어 인월시장에서 판매한 후, 수익금을 활용해 마을벽화를 그림
인월다큐	'인월시장 사람들을 다큐로 찍다'를 주제로 마을의 공간, 사람, 풍경을 생생하게 스케치하고 인터뷰하여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
퀼트	'마을'이라는 주제로 마을로고, 마을 굿즈를 직접 디자인해 제작하는 활동과 레고와 스톱모션을 활용해 지역 내 일상을 담은 단편영화를 제작하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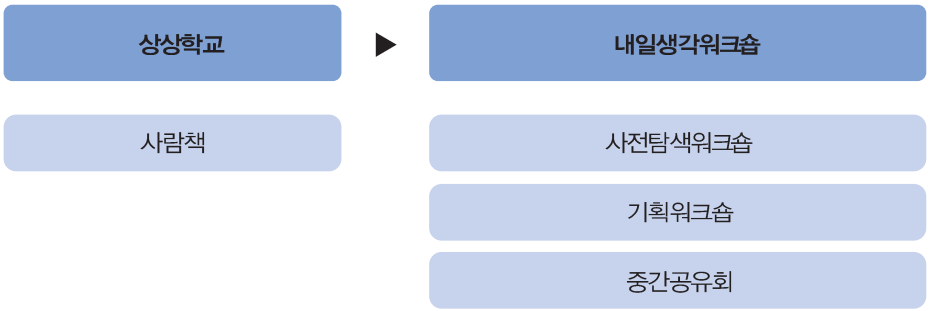
프로젝트 활동 전반적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계 정도가 높았던 또 다른 요인으로는 앞서 이뤄진 상상캠프의 주제가 '우리가 살고 싶은 마을'이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2단계 내일생각워크숍 내용이 3단계 내일찾기프로젝트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는 점은 다음에 다루는 진주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이는 내일상상프로젝트을 확산하는 과정에는 워크숍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3) 진주

앞서 다룬 두 지역에서는 비수도권 지역 안에서도 특정 대상에 초점을 두고 내일상상프로젝트를 변형하여 활용했다면, 진주는 기본적인 모듈의 큰 변형 없이 순서대로 따랐다. 상상학교를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접점을 늘리면서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취지와 방향을 알린 후, 내일생각워크숍으로 내일찾기프로젝트 활동을 설계했다.

다만, 상상학교를 관내 중·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진행한 것과 내일생각워크숍 모듈 안에서 상상캠프를 진행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약간의 차별성이 있었다. 그리고 이 차이는 프로젝트 결과물과도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4] 진주 지역 상상학교(1단계) 및 내일생각워크숍(2단계) 진행 개요



진주에서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수행한 진주교육공동체 '결'은 학교 교사, 시민단체,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신생 네트워크 조직으로, 각각의 활동을 통해 개별적으로 청소년들과 관계를 맺어오기는 했지만, 전체가 공유하는 청소년 풀(pool)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학교 교사 관계망을 활용하여 상상학교를 중·고등학교와 연계해서 진행했던 것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었던 노력이었다. 학교 안에서 청소년을 모집하고 공간을 활용하면서 더 많은 청소년을 만날 수 있었다.

상상학교에서 청소년이 만나는 사람책을 모두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른들로 구성하면서 지역사회와 접점을 넓힐 수 있었다. 기존에 지역기관이 가지고 있던 인적 자본을 중심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새로운 자원을 발굴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책의 이야기를 책자로 엮어내면서[16] 자원을 공유하는 범위를 더 넓힐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상상학교 참여자가 2, 3단계 참여자와 거의 중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단계 간 연결고리가 약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른 교외활동과 마찬가지로 활동 의지가 높은 청소년들이 유입된 덕분에 프로젝트 수행 역량은 높은 편이었지만, 내일상상프로젝트가 추구하는 방향과 취지에 이해도는 높지 않았고, 이로 인한 장단점이 있었다. 프로젝트를 끝까지 끌고 가는 결속력은 낮았는데도 각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바탕으로 비교적 수월하게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16) 진주 사람책 참고 (https://www.makehope.org/?p=47545)

이런 점에서 진주 지역기관에서 건너뛰고 넘어간 상상캠프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청소년 간 관계를 형성하고, 청소년에게 지역기관의 철학을 전달하는 과정으로서 2차년도에는 상상캠프를 2회 진행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1차년도에는 대신, 프로젝트 활동 주제를 정하는 과정에 지역기관이 개입하는 정도가 높은 편이었고, 이를 통해 지역기관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 반영되었다. 진주 청소년들의 프로젝트 활동 주제는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맥락 안에 있다.

청소년 인권이 지역사회 범주를 넘어선 주제였던 만큼 프로젝트 활동 전반에서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거의 없었다. '옹글이' 팀이 제작한 청소년 잡지 안에 청소년이 다니기 좋은 카페를 소개하기 위한 취재를 통해 지역사회와 접점을 가지는 활동이 작게나마 있었지만, 나머지 두 팀에서는 지역자원을 활용하거나 프로젝트 결과물을 지역사회와 환원하는 등의 활동이 없었다. 각 팀의 결과물이 계획보다 축소된 요인이기도 하다. 교복을 직접 디자인하기로 한 '청정' 팀은 기성복으로 대체하는 데 그쳐야 했고, 수업을 설계해보고자 했던 '참교육' 팀은 학교 공간의 설계도를 가상으로 그려보는 것으로 활동으로 선회했다. 프로젝트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쌓기 위한 지원이 지역사회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진주 지역의 경우, 각 팀을 담당하는 길잡이 교사가 없었다.

[표 3-3] 진주 내일찾기프로젝트(3단계) 활동 내용

팀명	프로젝트 내용
옹글이	청소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특별한 잡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컬러풀한', '유용한', '일러스트와 삽화가 들어간', '감각적인',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컨셉을 바탕으로 기사 분담 및 자료조사, 디자인, 편집
청정 (청소년 정의 구현)	청소년 인권과 관련해 '편한 교복'을 직접 디자인하기 위해 교내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디자인 및 최종 발주까지 진행
참(된) 교육	청소년이 원하는 학교 공간 디자인을 목표로, 공간 인식 조사 및 제안, 공간 디자인 및 3D 앱 등의 다양한 공간 구성 시도를 통한 관심 진로 고민의 기회

(4) 소결: 단계별 지역사회 연계 강화 방안

세 지역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했던 내용을 단계별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표 3-4]와 같다. 각 모듈 안에서 여러가지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연계를 시도할 수 있다. 상상학교는 사람책을 지역사회 안에서 관계망을 가지고 있던 인적 자본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기능을 했다. 내일생각워크숍에서는 기획워크숍이나 상상캠프에서 '마을' 관련 주제 활동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했고, 워크숍의 결과로 내일찾기프로젝트에서는 활동에 소재나 공간을 지역사회 안에서 찾을 수가 있다. 또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학습하기 위해 지역사회 안에서 관련 (인적) 자원을 발굴할 수도 있고, 프로젝트 결과물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형태로 지역사회와 연결할 수 있다.

대신, 1차년도에 새로운 지역에서 모델을 적용하는 경험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더 강화하기 위해 고려하면 좋을 지점들을 단계별로 발견했다. 첫째, 상상학교에서는 지역 내에서 관계망을 가지고 있는 인적 자본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인적 자본을 발굴할 수 있다. 상상학교를 통해 연결된 인적 자본은 후속 단계인 내일생각워크숍과 내일찾기프로젝트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내일생각워크숍에서는 워크숍 활동과 콘텐츠를 지역이나 마을과 관련된 주제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워크숍에서 충분히 관련 내용을 다룬 경우, 프로젝트 활동에서 자연스럽게 청소년이 스스로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간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상상캠프의 기능을 재발견했다.

마지막으로, 내일찾기프로젝트에서는 길잡이 교사 역할이 중요하다. 길잡이 교사는 청소년들의 프로젝트 활동을 함께 하면서 청소년에게 필요한 자원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지역사회와 연결해서 구상할 수 있도록 조언해줄 수 있다.

[표 3-4] 내일상상프로젝트 단계별 지역사회 연계 강화 방안

단계	지역사회 연계 내용	해당 지역
상상학교	지역 내 인적 자본을 사람책으로 활용	진주
내일생각워크숍	워크숍 및 상상캠프에서 '마을' 관련 활동 수행	남원 지리산 권역 진주
	프로젝트 중간과정 및 결과물 공유	남원 시내 권역 남원 지리산 권역 진주
내일찾기프로젝트	지역자원 활용 (예: 특산물, 전통시장, 청소년 잡지 취재원 등)	남원 지리산 권역 진주
	새로운 지역자원 발굴 (예: 벽화 작가, 축구 교사)	남원 시내 권역 남원 지리산 권역
	결과물 지역사회 환원 (예: 지역 아동센터 활동, 마을벽화 그리기 등)	남원 시내 권역 남원 지리산 권역

2) 내일상상프로젝트와 학교 연계

내일상상프로젝트는 학교 밖 공간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이지만,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세 지역 모두 학교와 연계되어 이루어졌다.[17] 이 점에 착안하여, 본 절에서는 내일상상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했던 학교 교사 및 지역기관 실무자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내일상상프로젝트의 확산 방향을 지역 간 확산뿐만 아니라, 지역 내 영역 간 확산을 함께 염두에 두고 그 방식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7) 이는 1차연속사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특징으로, 김수영 · 강현주(2018)는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통해 학교-지역사회의 협업이 확대되었다고 인식하는 교사 및 지역기관 실무자의 목소리를 담았다.

[표 3-5] 내일상상프로젝트 단계별 학교 연계 내용

단계	학교 연계 내용	해당 지역
참가자 모집	활동 경험이 적은 청소년을 모집하기 위해 평소 청소년의 활동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교사들의 추천을 받음	남원 시내 권역 남원 지리산 권역
	유사 활동 경험을 가진 청소년들이 직접 또래 청소년을 모집하기 위해 교내 공간에 홍보물 부착 등 활용함	남원 지리산 권역
상상학교	학교 공간(교실, 강당 등)을 활용하여 모집 및 운영함	진주
내일생각워크숍	워크숍 콘텐츠 연구 및 개발 경험을 보유한 교사가 직접 워크숍을 진행함	남원 시내 권역
내일찾기프로젝트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서 필요한 공간(가사실, 특별활동실 등)을 개방함	남원 시내 권역 남원 지리산 권역
	교사가 각 프로젝트의 길잡이 교사로 참여하여 청소년 인솔 · 지도를 맡음	

내일상상프로젝트가 학교와 연계된 정도와 방식은 지역마다 차이가 난다. 모집부터 프로젝트까지 전반적으로 연계가 이루어진 지역도 있고, 특정 단계에만 연계가 있었던 지역도 있다. 남원 지리산 권역은 학교와의 연계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지역이다. 수행기관인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계망을 바탕으로 내일상상프로젝트 진행 중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학교가 혁신학교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연계 내용은 주로 청소년 참가자 모집, 공간 지원, 교사의 수업 및 지도 경험 활용 등으로 이뤄진다. 모집 단계에서 학교 공간을 활용하고 교사를 통해 추천을 받는 것은 2차 연속사업 참여 기관이 모두 청소년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신생 조직이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유의미하다. 적극성이 높은 청소년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기존 민간 청소년 활동의 한계를 보편 교육이 가능한 공교육의 특성을 활용해 보완했다.

모집 이후에 진행된 상상학교와 내일찾기프로젝트 활동 중에도 청소년 공간의 부재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공간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했다. 또한, 워크숍 및 프로젝트 활동에 교사가 개발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진행하거나, 청소년 인솔 및 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길잡이 교사로 참여하는 등의 연계가 있었다.

세 지역에서 학교 연계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은 학교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의 연계를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원 지리산 권역이 혁신학교 교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진 것과 유사하게 남원 시내 권역에서도 수행기관인 춘향골교육공동체가 지역내 교사 연구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진주 역시, 수행기관인 진주교육공동체 '결' 이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교사 집단을 하나의 큰 축으로 가지고 있었던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18] 교육과정이나 정책 추진에 있어서 학교와 지역사회 연결의 필요성은 중요하게 강조되지만, 실제로 연결이 되는 데에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한계를 가진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곤 한다.[19] 실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과 밀착해서 활동하는 경험을 가진 기관은 단위학교수준에서가 아니라, 자발적 참여 의사가 높은 교사 집단을 개인 수준에서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1) 현행 교내 진로교육의 한계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필요성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교사들이 본업과 더불어 학교 밖 진로탐색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요인을 통해 진로교육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할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학교 안에서 진로교육은자원의 한계로 인해 1:1 맞춤형 교육이 불가하고, 이로 인해 실효성을 가지기가 어렵다. 학교의 진로교육 유형에서 청소년의 수요 및 만족도가 가장낮게 나타나는 직업인 특강을 계속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같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18)이러한협업체계가 지역마다 구축된 것은김수영 · 강현주가 분석했듯이 학교안에서도다양한 교과외 활동을장려하는 정책이추진된배경이 있다.

19)주요요인으로 학교의 폐쇄성, 교과과정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할 수밖에 없는 환경 등이 지목된다. 이는 공교육이 가지는 구조적 한계다.

"진로교육이라 하면 아이 하나하나에 맞춰서 그 아이의 특성을 파악하고, 또 본인이 자기가 어떤지를 알고, 그런 다음에 어떤 길이 있는지 탐색을 하기도 하고, 마음에 드는 영역을 체험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학교는 아무래도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1:1 개인 맞춤 진로교육이라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진로의식 교육이라든가 진로 전반에 관한 어떤 지식 중심의 교육은 가능한데, 한 아이, 한 아이가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체험 마당 같은 걸 제공하는 건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 점에서 학교는 좀 한계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OO A

둘째, 학교의 진로교육 전문성 부족을 꼽을 수 있다. 이는 교과과정 중심으로만 역량을 강화해온 교사들이 교내에서 진로교육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과 연관이 있다. 또한, 청소년이 학교 안에서는 교과과정에서 부과되는 활동 이외에 자발적인 활동을 추가로 감당해내는 것이 어렵다는 점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 정부가 수능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청소년들의 활동을 더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20]

"학교의 진로교육이 대두되고 할 때 보면, 어떤 진로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선생님들이 다 키워진 다음에 진로교육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진짜 작은 학교에는 거의 없고, 큰 학교에도 중학교는 많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편성이 많이 되냐면 수업 시수가 적으신 분들이 진로(교육)를 (담당)하기도 하고, 그러니 매년 선생님들이 바뀌고 담당하시는 분들도 그것에 대한 전문성이 좀 부족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기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그런 것이 지금 어려운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중학교를 졸업하는 그 당시까지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20) 실제로 남원 지리산 권역에서는 기존에 활동경험을 축적한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3년 동안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학업의 부담 등으로 인해 하반기부터 활동을 중단하는 사례가 있었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 경험들도 사실 학교에서 하기가 어렵고 그런 것들이 좀 한계인 것 같아요."

–김OO B

"학교는 균형이 맞지 않아요. 해야 하는 건 굉장히 많고, 하고 싶은 걸 할 기회는 너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활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도 치우친 균형을 조금이나마 회복하자고 하는 것에 있어요. 주체성, 자발성,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기존에 진로라고 하는 게 직업에 대한 탐색, 대학에 대한 탐색, 어떤 외부에 대한 탐색으로 치우쳤다면 이제 방향을 좀 '나'로 돌려서 질문을 해보는 그런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교사들은 이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미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데, 뭘 알려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없다고 고백해야 하는 때가 아닌가 해요."

–유OO

셋째, 학교 안에서 '진로'의 개념에 대해 합의가 없을뿐더러 그러한 합의를 하고자 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있다. 여기에는 1년 단위로 끊어질 수밖에 없는 학교 교육과정이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덧붙여 4~5년 주기로 학교를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맞물려 있을 것이다.

"진로교육에 대한 구성원의 철학적 합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사실 공교육 내에서 지속적이고 성장 가능한 진로교육은 없습니다.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구성원의 철학적 합의가 없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그런 건 좀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애들도 자라면서 생각도 바뀌고. 그런 것들의 전반에 대한 커리큘럼을 짜고, 그것들에 대해서 합의를 봐서 이어가고 하는 과정들이 공교육 내에서 사실은 좀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서 예산 같은 부분도 1년 단위로 툭툭 끊기기 때문에 6년을 바라보는 진

로교육은 사실 어렵죠."

–송OO

"저는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진학을 중심으로 한 활동만 하고, '어떤 진로교육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합의도 없고요. 사실은 진로에 대한 합의만 없는 게 아니라, 교사들 간에 무엇을 같이 합의하고 하는 그런 문화도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 환경 때문에)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받아야 할 질문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때 행복한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경험하고, 발견할 때 저는 자존감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자기 삶을 꾸려갈 힘이 잡힌다고 생각하거든요."

–유OO

즉, 학교가 가진 행정적,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이 각자 학교 밖 활동을 통해서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은 것이다. 개인 교사의 역량과 의지의 차이는 교내에서도 발현되는데, 같은 강연 형태의 활동을 추진하더라도 교사에 따라 개인이 가진 관계망을 통해 지역 내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혁신학교의 특성을 활용하여 마을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데 있어 청소년 기관과 협업하여 진로교육의 관점을 녹여내기도 한다. 하지만, 단위학교 중심으로 지역자원에 접근하는 것은 '체험' 위주가 될 수밖에 없다. '꿈길'이 진로체험법에 따라 유형별로 확보하고 있는 자원의 한계가 여기에도 있다.

"저는 '꿈길'은 별로 사용하지 않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꿈길'이 직업체험 중심이 많아요, 일회성 체험.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찰서에 간다고 해서 아이들이 내가 경찰이 됐을 때 어떨지 정보를 알 수 있는 체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남원 시청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줘서, '마을 교육'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체험도 데리고 나가면 정말 일회성의 체험, 그러니까 유치원생이 와도 똑같은 과정, 중학생이 와도 똑같은 과정이더라고요. 치즈 만들기를 한다거나 떡 만들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야 어렸을 때도

하는 일이고, 그게 과연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농부가 되려면 생산을 하고 유통을 해서 내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조직화 돼서 '아, 내가 농부를 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는데 다 그냥 일회성 체험만 되게 많아요."

-김OO B

(2) 내일상상프로젝트와 지역사회의 연결

내일상상프로젝트는 교내 진로교육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지역자원에 대한 접근이 학교와 다르게 이루어진다. 공급자인 공공기관이 유형을 설정해놓고 유형별로 자원을 발굴하여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원하는 활동을 먼저 파악한 후 필요한 자원을 지역내에서 찾아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계가 이뤄질 수 있다.

"애들이 벽화를 그리겠다고 하는데 벽화를 도와줄 사람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남원을 다 수소문해서 건너고 건너서 만나게 된 선생님이 도와주셨어요. 저희한테는 그 사람을 한 명 남겼다는 게 (커요)."

-김OO B

또한,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간 자원에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최대한 어른의 도움을 자제하여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활동을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인지하지 못한 주변을 알아보고 직접 찾아가는 경험은 청소년이 사는 지역사회를 '삶터'로서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이는 지역에 대한 자긍심,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존감 향상과 연결될 수 있다.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다양한 공간을 찾아다니는 경험은 학교안에서 진행되는 진로교육에서 안전 등의 이유로 쉽게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여러 장소를 찾아가는 것도 정말 하나의 공부더라고요. 지역에 뭐가 있어도 뭐가 있는지, 어디 있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장소를 찾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최OO

"학교 안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예산의 제약도 있고,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갈 때 안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도 있어요."

-김OO A

남원 지리산 권역에서 내일상상프로젝트의 모듈을 '마을'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활용한 것이 유의미한 프로젝트 결과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은 2단계 내일생각워크숍의 콘텐츠를 기획하는 데 참고할 만한 지점이다. 지역사회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고, 청소년들이 공동체 안에서 활동을 축적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로 볼 수 있다. 2차연도부터는 나머지 두 지역 모두 지역사회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21]

"(남원 지리산 권역은) '내가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라는, 올해 그런 주제로 진행을 했잖아요. 그 주제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자원을) 자꾸 찾을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아요. (중략) '내가 살고 싶은 마을'을 상상하려고 할 때 내가 있는 마을을 먼저 보게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인월다큐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시장 다큐를 찍어보는 경험을 통해서, '지역자원이다, 연결이다' 이러한 어떤 명제(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활동 속에서 지역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누굴 만날까 고민하면서 연결되었던 것 같고. (지역 특산물인 사과를 잼으로 만들어서 시장에 판매하고 수익금으로 지역 안에서 벽화를 그린) '2005팀'은 사실 말할 것

21) 남원 시내 권역은 상상학교를 청소년들이 지역 내 인적 자본에 직접 찾아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계획했고, 진주는 마을학교 교사들이 길잡이 교사의 역할을 맡기로 했다.

도 없죠.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라고 많이 물어봤어요, 제가 '어떻게 해라' 라고 말해주지는 않았고. '시장에서 물건을 팔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방법을 알려 주는 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시장상회를 찾아가 봐라' 제가 시장상회에 전화해준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시장상회를 가보고 문이 닫혀있는 경우 그럼 그다음에 '어딜 가야 할까요?' 질문하면 그다음 '어디가 제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까. 면사무소에 가봐라'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루트를 찾아낸 것들. '아, 일이 되게 하려면 지역에 어떤 어른을 찾아가야 하겠구나, 모르면 길잡이 교사께 물어보면 알려 주겠구나' 그런 식으로 (느끼게 했어요). 저희가 발로 찾아서 지역자원을 연계해준 건 아니지만 '어른으로서의 상식적인 부분들을 설명해준 것이 중요했구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주제라는 것도 되게 중요했구나' (생각해요). '내가 살고 싶은 마을' 이(라는 주제가) 아니었다면 굳이 그 안을 찾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주제를 도출해낸 것이 의도치 않게 좋은 결과들을 가지고 오고, 아이들이 지역 어른들을 가깝게 여기거나 좀 더 신뢰하게,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우리 지역의 좋은 사람으로 되는, 그런 계기들이 된 것 같아요."

–조OO

그리고 학교 밖에서 관심사가 비슷한 또래 청소년들을 학년 구분 없이 만나는 기회도 자원의 연결로 볼 수 있다. 특히, 지역사회의 규모가 작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전교생 수가 적은 학교에서 오랫동안 형성하는 관계로부터 받는 피로도가 크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년 간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는데,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통해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연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저는 또 같은 학교에서 못 찾은, 자신과 관심사가 같은 아이를 찾은 것도 지역의 자원 (연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OO B

"소규모의 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때까지 10년, 고등학교까지 13년, 그 규모가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한번 어긋나면 그 관계의 피로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거든요. 그걸 치유할 방법은 관계를 넓히는 건데, 교외활동이 정답이에요. 연대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하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그 연대감은 점점 더 높아지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생각과 활동공간이 넓혀진 것 같아요."

-송OO

"학교 교육과정은 우리나라가 좀 되게 이상하잖아요. 한 학년, 나이로, 굉장히 단절되어 있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마을에서 같이 어울려 놀고 거기서 배우고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중2 아이들이 캠프를 와서 (중략) 고2 아이들이 여름 캠프 진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걸 하고 싶다' 이런 꿈을 갖게 됐고, 특히 빨리 무엇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은 선배들 보고 같이 하면서 배울 수 있는 이런 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유OO

내일상상프로젝트가 3년을 기준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22]도 학교가 지역사회와 연결되기 어려운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앞서 지적되었듯이 학교가 1년 단위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교사들은 4~5년마다 학교를 옮겨 다녀야 하는 사정 때문에 학교가 구심점이 되어 활동이 진행되는 것은 위험하다. 지역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도구'로서 학교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이런 점에서 중요해 보인다.

"제가 홍성의 연구모임에 다녀 왔는데, 거기에서 고민하는 지점이 뭐냐면, 처음에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학교에 뜻있는 선생님들과 같이 만들고 활용하고 했는데, 그 선생님이 옮기고 나니, 새로운 구성원분이 그게 잘 안 맞으니까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22) 이는 청소년의 성장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한 경험이 전혀 없는 청소년들에게는 장기간 실험과 실패를 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래서 지금 고착상태인 거에요. 그때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가 뭐냐면 '프로그램이 올곧이 학교로만, 학교에서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다, 학교는 어떤 교육과정, 커리큘럼 내에서 하나의 도구로써 활용해야 한다' 는 것이었어요."
>
> –송OO

(3) 학교 안팎으로 넘나드는 내일상상프로젝트

내일상상프로젝트에서 기관과 학교의 관계가 쌍방향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통해 프로그램 자원을 통한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안에 스며들고 있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내일상상프로젝트를 경험한 청소년이 학교 안에서 역할이 확장되는 경험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영향력은 또래 청소년들에게도 확산될 수 있다.

> "마을 안에서 아이들이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걸 해본 경험을 살려서, 학교에 가서 그 아이가 주체가 되어 다른 아이들을 모으고 함께 하는, 그게 가장 좋은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많은 지지, 개인적인 관심 속에서 역량을 좀 키우고 그 역량을 학교로 가지고 들어가서 학교에서 그 아이가 또 씨앗이 되는 그런 구조가 일어나면 가장 좋지 않을까요."
>
> –송OO

> "학교 안에서 하는 플리마켓에 자율동아리 아이들도 있지만,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새롭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마켓을 운영했던 경우도 있어요."
>
> –유OO

둘째, 교사들도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운영한 경험을 학교 안으로 가지고 들어간다. 다양한 방식으로 국어, 수학 등의 교과 활동을 학생이 주도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도 한다. 예산

구조의 한계와 교과 중심으로 활동이 이뤄지는 교내 환경의 제약 안에서도 청소년이 자발성을 발현할 수 있는 활동을 구현한 것이다. 이는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스스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청소년의 역량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내일상상프로젝트'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스스로 기획하는 여행' 프로그램을 하고 교실로 돌아와 보니 '우리 학교도 규모가 크지 않은데, 이런 걸 왜 못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학교 안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은 있더라고요. 예산의 제약도 있고,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갈 때 안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도 있었지만, '한번 해보자' 했어요. (중략) 연말이니까 예산이 많이 남은 곳들이 있어서, 그런저런 예산을 모아 '스스로 기획하는 여행'을 하는데, 내일상상프로젝트에서 했던 것처럼 자유롭게 할 수는 없었어요. 아무래도 형식을 좀 갖춰야 했었어요. 그렇지만 '포인트를 자발성에 둬보자' 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줬어요. '학년을 섞어라, 4~5명이 한팀이 되도록 하자, 그리고 대중교통만 이용하자.' 차를 빌린다거나 선생님들이 차를 해주면, 그때는 벌써 또 발이 내 것이 아니니까요. 이런 조건을 두고 학교에서 공모전부터 했어요. 팁을 주고 여러 가지 조건, 1인당 예산까지도 다 정해줬어요. 그런 조건을 주고 자신들이 찾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김OO A

"중1 아이들 수학체험전을 2018년, 2019년 이렇게 두 해 했는데, 다른 (학교에서는) 수학체험전은 체험을 주체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이들은 참여만 해요. 여기에서는 1학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인데도 자신들이 그걸 세 타임으로 나눠서 한 번씩은 다 부스운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보는 위치에도 서보게 하고, 참여하는 위치도 해보게 하는데, 이런 과정을 우리가 (내일상상프로젝트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런 발상은 저희도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유OO

반대로,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통해 학교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청소년도 있었다.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소개하여 교내에서는 제공하기 힘든 활동을 통해 성장하고 학습할 기회를 얻도록 할 수 있었다. 이는 지역사회 안에서 학교와 기관이 각자가 가지는 강점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며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난번에 A라는 아이는 학교에서 동아리를 하려고 했는데 안됐어요. 동아리는 3명 이상이 되어야 하니까. (나중에) 1인 1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되긴 했는데, 그것도 역시 혼자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J라는 옆 친구가 이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오라고 해서 A가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도 있었거든요."

–유OO

"저희(남원 시내 권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아이들 대상 자체를 이런 고민을 담아서 선정했는데, 이렇게 진행하면서 힘들긴 했지만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정말 앞에 나오기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나라도 해야 하겠구나'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임감을 느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남들 앞에서도 설 수가 있게 되고, 이런 경험들(이 쌓였어요). 만약에 학교 안에 똑같이, 다 같이 들어가면 틀림없이 그 앞에서 잘하는 아이들이 리드하게 되어있죠. 보면 얘네는 항상 따라가는 입장이고, 본인들이 뭔가를 리드할 만한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통해서) 아이들은 어쨌든 그중에서 누구라 하더라도 리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뭔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책임감, 또 그런 걸 통해서 이루어 내면서 자신감, 이런 게 생기게 됐다는 게, 내일상상프로젝트에서 좋았던 게 아닐까 해요."

–최OO

"B는 학교 선생님들도 되게 힘들어했던 아이인데, (내일상상프로젝트라는) 학교 밖 프로그램에 없었으면 아마 전학을 가거나, 학교에서 끊임없이 화를 내거나, 또 자책하거나, 이 사이클을 계속 돌았을 거예요."

–김OO B

내일상상프로젝트가 학교 안으로 확산하는 양상은 1차연속사업(2016~2018년) 참여 지역 중 한 곳인 장수에서도 발견된다. 장수 지역 내 학교에서는 내일상상프로젝트에 대한 학습의 영향으로 2019년에 교내 진로프로그램을 청소년들이 직접 견학지를 선정하고 계획하는 내용으로 추진하여 진행했다. 이러한 확산은 내일상상프로젝트가 프로그램 자원으로서 지역사회 안에서 학교와 기관을 매개한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 · 2차연속사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공교육으로의 내일상상프로젝트 확산과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은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풀어야 할 과제다.

희망리포트

4.
내일상상프로젝트
참여 청소년의 변화와 성장

1) 내일상상 핵심역량 지수

2) 1차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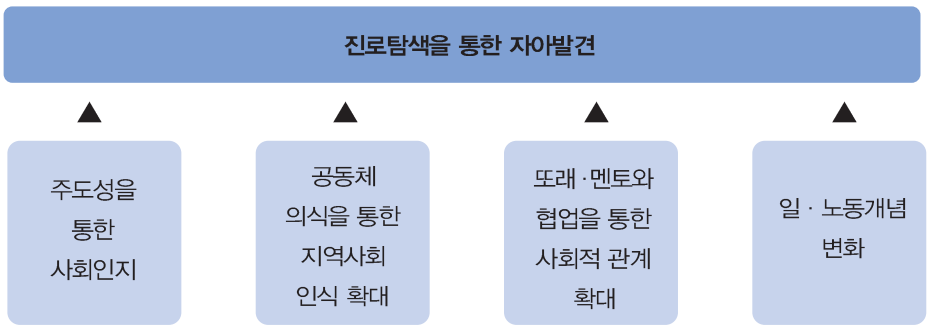
3) 2차 조사 결과

4. 내일상상프로젝트 참여 청소년의 변화와 성장

1) 내일상상 핵심역량 지수

청소년들은 내일상상프로젝트를 경험한 후, 어떻게 성장했을까? 프로젝트 결과물에 드러나지 않는 청소년들의 변화와 성장을 관찰하기 위해 2차연속사업부터는 내일상상프로젝트의 핵심 지향 가치를 바탕([그림 1] 참고)으로 청소년들의 다섯 가지 역량(①자아 이해력, ②협업 능력, ③진로 주도성, ④직업의식, ⑤공동체 의식)을 측정한다. 각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을 바탕으로 2단계 내일생각워크숍 시작과 3단계 내일찾기프로젝트 종료 시점에 맞춰 두 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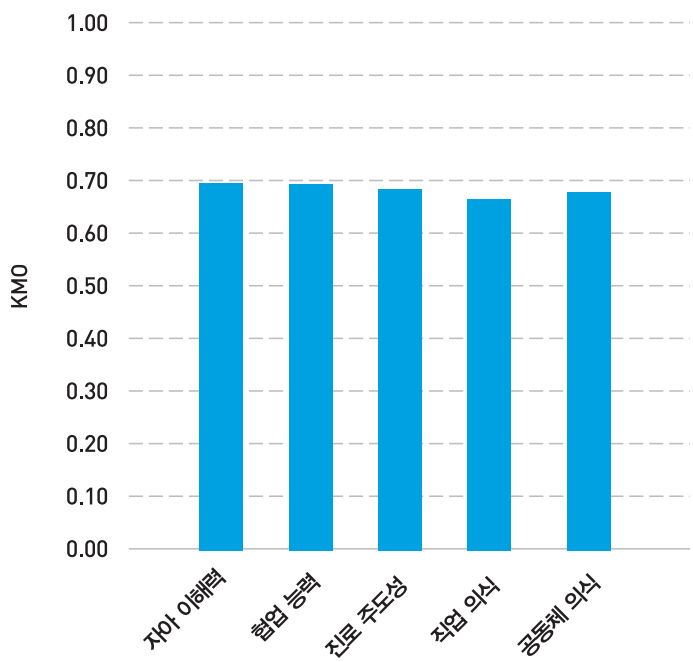
[그림 4-1] 내일상상프로젝트의 다섯 가지 지향 가치(김수영 · 조현진, 2019)



지금부터는 요인분석 (Factor Analysis)을 통해 여러 설문 문항들 사이의 상호 관련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설문지 문항들의 타당성을 검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섯 가지 청소년 핵심역량 (자아 이해력, 협업 능력, 진로 주도성, 직업의식,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측정하고 있는 설문 문항들에 대해 각각 요인분석을 실시한다. 이때, Kaiser-Meyer-Olkin (KMO) 측도를 사용한다. KMO 측도는 설문 문항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문항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며,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그 값이 클수록 전반적으로 문항간의 공통성이 높아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그 값이 0.5 이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요인분석 결과에 의하면 5가지 청소년 핵심역량을 측정하는 설문 문항들이 전반적으로 적합한 수준의 타당성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각의 KMO 측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록 큰 차이가 보이진 않았지만, 자아 이해력과 협업 능력의 경우 0.70으로 그 값이 가장 컸고, 이어서 진로 주도성 (0.69), 공동체 의식 (0.68), 그리고 직업의식 (0.67)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청소년 핵심 5개 역량 설문 문항 요인분석 결과



자아 이해력은 다음과 같은 총 6가지 설문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통해 측정된다. 첫째,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둘째,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셋째, 나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넷째, 나는 내가 내린 결정을 신뢰할 수 있다. 다섯째, 나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여섯째,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주관하며 살고 있다. 분석 결과, 위 6가지 설문 문항의 KMO 값이 0.70으로 나타났다.

[표 4-1] 청소년의 핵심역량 중 자아이해력의 요인분석 결과(KMO 값 보고)

설문 문항	KMO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0.64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0.64
나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0.87
나는 내가 내린 결정을 신뢰할 수 있다	0.66
나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0.67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주관하며 살고 있다	0.84
전체	0.70

협업 능력은 다음과 같은 총 6가지 설문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통해 측정된다. 첫째, 평소에 나는 친구들에게 내 이야기를 잘한다. 둘째,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셋째,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넷째,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가 어려워하면 기꺼이 돕는다. 다섯째,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중요한 사항이나 문제점이 생기면 친구들과 함께 해결한다. 여섯째,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그룹활동에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한다. 분석 결과, 위 6가지 설문 문항의 KMO 값이 0.70으로 나타났다.

[표 4-2] 청소년의 핵심역량 중 자아이해력의 요인분석 결과(KMO 값 보고)

설문 문항	KMO
평소에 나는 친구들에게 내 이야기를 잘한다	0.57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0.54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0.82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가 어려워하면 기꺼이 돕는다	0.78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중요한 사항이나 문제점이 생기면 친구들과 함께 해결한다	0.71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그룹활동에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한다	0.76
전체	0.70

진로 주도성은 다음과 같은 총 3가지 설문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통해 측정된다. 첫째, 앞으로 나의 진로는 내가 스스로 결정할 것이다. 둘째, 나에게 맞는 진로가 무엇인지 내가 가장 잘 알 것이다. 셋째, 주변에서 반대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진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위 3가지 설문 문항의 KMO 값은 0.69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3] 청소년의 핵심역량 중 진로주도성의 요인분석 결과(KMO 값 보고)

설문 문항	KMO
앞으로 나의 진로는 내가 스스로 결정할 것이다	0.70
나에게 맞는 진로가 무엇인지 내가 가장 잘 알 것이다	0.69
주변에서 반대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진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0.67
전체	0.69

직업의식은 장래 직업 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총 6가지 사항들이 각각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을 통해 측정된다. 첫째,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갖는 것. 둘째, 많은 돈을 버는 것. 셋째, 쉽게 해직되지 않고, 오랫동안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 넷째,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 다섯째, 다른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하는 것. 여섯째, 내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하는 것. 분석 결과에 의하면, 위 6가지 설문문항의 KMO 값은 0.67로 확인되었다.

[표 4-4] 청소년의 핵심역량 중 직업의식의 요인분석 결과(KMO 값 보고)

설문 문항	KMO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갖는 것	0.72
많은 돈을 버는 것	0.58
쉽게 해직되지 않고, 오랫동안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	0.59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	0.71
다른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	0.74
내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	0.67
전체	0.67

마지막으로, 공동체 의식은 다음과 같은 총 5가지 문항에 대해 평소 응답자의 생각이나 행동이 해당하는 정도를 통해 측정된다. 첫째, 나는 우리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 둘째, 나는 우리 동네가 살기 좋다고 생각한다. 셋째,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좋다. 넷째, 나는 우리 지역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나는 내가 우리 지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위 5가지 문항의 KMO 값은 0.68으로 나타났다.

[표 4-5] 청소년의 핵심역량 중 공동체 의식의 요인분석 결과(KMO 값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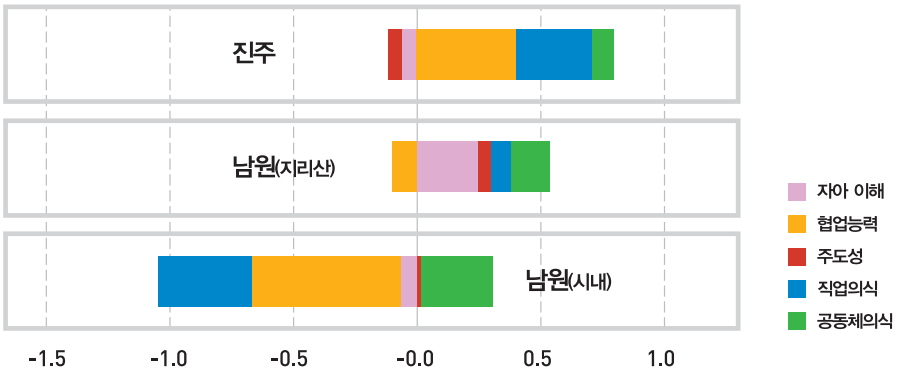
설문 문항	KMO
나는 우리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	0.64
나는 우리 동네가 살기 좋다고 생각한다	0.65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좋다	0.75
나는 우리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0.66
나는 내가 우리 지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0.71
전체	0.68

2) 1차 조사 결과

[그림 4-3]은 관련 설문 문항을 활용하여 구성한 다섯 가지 역량 지표를 지역에 따라 1차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각 지표는 항목에 따라 표준화한 값을 활용하여 비교에 용이하도록 처치하였다. 평균인 0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영역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역량 수준을 나타내고, 반대로 왼쪽 영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역량 수준을 나타낸다. 이러한 그래프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핵심역량 수준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전반적으로 진주 지역 학생들이 높은 역량을 보여주었으며, 이어서 남원 지리산 권역과 남원 시내 권역순이다. 세 지역에서 보이는 전반적인 역량의 차이를 통해 참여 청소년을 모집하는 방식에 따라 역량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진주 지역에서는 공개 모집을 했고, 남원 시내 권역에서는 활동 경험이 적은 청소년을 중심으로 교사 추천을 통해 모집했다. 공개 모집을 통해서는 상대적으로 자발성이 높고 역량이 이미 높은 청소년들이 유입된다.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남원 시내 권역의 시도는 유의미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3] 청소년 핵심역량의 지역별 비교



각 역량을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진주 지역 학생들은 협업 능력과 직업의식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반면에, 자아 이해력이나 진로 주도성, 공동체 의식은 진주 지역 학생들 간 비교하거나 다른 지역 학생들과 비교해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원 시내 권역과 지리산

권역은 협업능력에 있어 진주 지역에 비해 역량수준이 뒤처지는 결과를 보였다.

다른 역량에 있어서는 지리산 권역과 시내 권역에서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지리산 권역의 경우 자아 이해력이나 공동체 의식에서 높은 역량 수준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시내 권역에 비해 공동체 의식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내 권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공동체 의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직업의식은 남원 시내 권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량별로 하나씩 살펴보면,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이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정도는 진주 지역이 -0.06점, 남원 지리산 권역이 0.25점, 남원 시내 권역이 -0.06점으로, 남원 지리산 권역이 월등히 높고, 나머지 두 지역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의 협업 능력은 진주 지역이 0.4점, 남원 지리산 권역이 -0.1점, 남원 시내 권역이 -0.6점으로 진주 지역에서 가장 높고, 남원 시내 권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진로주도성은 진주 지역이 -0.04점, 남원 지리산 권역이 0.05점, 남원 시내 권역이 0.02점으로 지역 간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의식은 진주 지역이 0.32점, 남원 지리산 권역이 0.08점, 남원 시내 권역이 -0.38점으로 나타난다. 이 결과에서는 남원 시내 권역 학생들의 결과가 흥미롭다. 진주 지역과 비교할 때 0.7 표준편차만큼이나 차이가 난다. 장래 직업 생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에 대한 문항이므로 여러 문항의 값을 합쳐 만든 지표로 직업의식을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의심을 받을 여지가 있다. 따라서 직업의식 변수에 포함한 6개의 문항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상관성이 낮은 변수는 제외하고 '직업의식' 지표를 만드는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쉽게 해직되지 않고, 오랫동안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과 신뢰수준 99%에서 0.5 만큼의 상관성을 맺고 있으나 다른 정보와는 상관성이 상당히 낮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갖는 것'은 '내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과는 0.5, '다른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과는 0.4,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과는 0.3 만큼 신뢰수준 99%에서 상관성을 맺고 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과도 신뢰수준 99%에서 0.5 수준에서 상관을 맺고 있다. 그에 따라 '많은 돈을 버는 것'과 관련한 정

보를 제외하고 새롭게 직업의식 변수를 생성하여 지역 간 격차를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진주지역 0.35점, 남원 지리산 권역 0.06점, 남원 시내 권역 -0.31점으로 6개 문항을 모두 포함한 경우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6]은 학생들의 직업의식을 문항별로 나누어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직업의식을 가진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지역별 표준점수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남원 시내 권역 학생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에 응답한 비율이 다른 지역 학생들에 비해 낮기는 하나 전체 응답 수가 적기 때문에 응답의 의미

[표 4-6] 청소년들의 직업의식에 대한 문항별 빈도표

문항	지역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갖는 것	진주			2	6	12
	남원(지리산)		1	4	20	15
	남원(시내)		1	4	12	8
많은 돈을 버는 것	진주		1	4	10	5
	남원(지리산)	1	1	8	19	11
	남원(시내)	1	2	11	5	6
쉽게 해직되지 않고, 오랫동안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	진주			2	12	6
	남원(지리산)	1		8	16	15
	남원(시내)	1	1	7	10	6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	진주		1	1	9	9
	남원(지리산)	2	1	9	18	10
	남원(시내)			8	10	7
다른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	진주		1	4	10	5
	남원(지리산)		2	11	12	15
	남원(시내)		1	7	9	8
내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	진주				5	15
	남원(지리산)			2	9	29
	남원(시내)			6	4	15

를 파악하고 일반화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와 '중요하지 않다'에 해당하는 응답도 전체에서 2명을 넘지않는 것을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진주 지역이 0.08점, 남원 지리산 권역이 0.16점, 남원 시내 권역이 0.30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남원지역 학생들이 진주 지역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동체 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위 5개 문항은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동네에 대한 인식에 대한 3개 문항과 더 확장된 의미에서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한 2개 문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두 영역을 나누어 지역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과 따로 나누어 살펴보니 함께 살펴보았을 때와 다른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공동체 의식 전체 점수에서 0.08점이었던 진주 지역의 경우 동네에 대한 인식만을 살펴보니 0.35점으로 0.26점이나 올랐다. 남원 지역에서도 시내 권역 학생들은 0.30점에서 0.44점으로 동네에 대한 애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리산 권역 학생들은 0.16점에서 0.11점으로 시내 권역 학생들보다 -0.33점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동네에 긍정적이었던 진주 지역 학생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에서는 -0.30점으로 무려 0.65 표준편차만큼이나 낮은 수준의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었다. 남원 지역에서도 지리산 권역과 시내 권역학생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있었는데, 시내 권역의 학생들(0.01점)에 비해 지리산 권역 학생들(0.19점)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 높고 변화의 의지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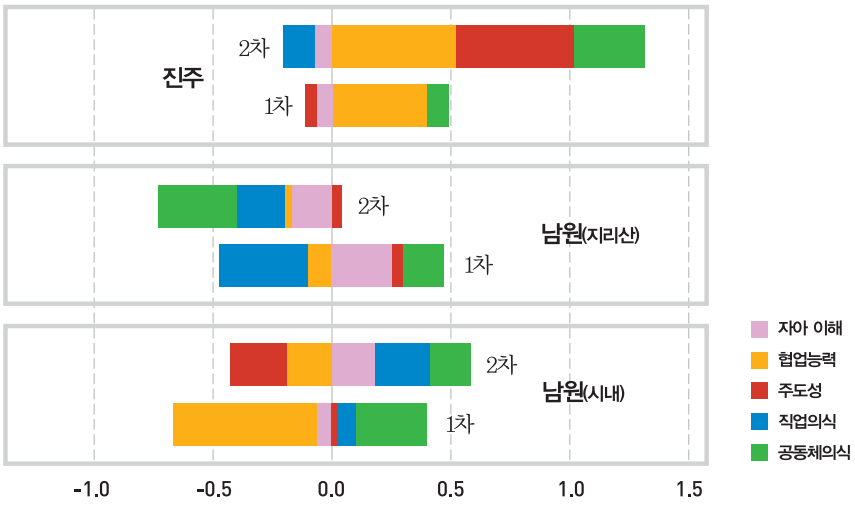
3) 1, 2차 조사 결과 비교

추적조사에서도 1차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섯 가지 청소년의 핵심역량에 대해 집중하여, 내일상상프로젝트가 학생들의 핵심역량 증진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23] [그림 4-4]는 진주와 남원 지역에서 우리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한눈에

23) 각 조사 시점에서 학생들의 응답을 표준화하여 (평균 0, 표준편차 1) 시기별 지역및 성별에 따른 비교나 1차 조사와 2차 추적조사 간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고자 처치하였다.

알아보기 위한 누적 그래프이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 결과를 평균 0보다 큰 값을 나타내는 오른쪽 부분에서 비교하여 막대의 길이가 1차 조사에 비해 2차 조사에서 길어졌다면 내일 상상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핵심역량이 증진되었다는 의미가 된다.

[그림 4-4] 청소년 핵심역량의 지역 및 차수별 비교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진주 지역에서 찾을 수 있다. 진주 지역의 2차 조사 결과는 모든 역량에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아쉽게도 남원 지리산 권역에서는 2차 조사에서 평균보다 낮은 역량 수준을 보여주며 1차 조사에 비해 오히려 핵심역량 점수가 하락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항목별로 1차 조사와 2차 조사 결과를 비교하며 살펴보도록 하겠다. 자아이해력에 있어서는 진주 지역에서는 1차 조사에서 -0.06점, 2차 조사에서 -0.07점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된 이후 0.01점 하락하긴 하였으나 거의 변화가 없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자아 이해력의 하락세는 남원 지리산 권역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차 조사에서 0.25점에서 0.42점이나 떨어진 -0.17점이었다. 시내 권역에서는 0.24점의 향상되어 0.18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남원지역 내에서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자아 이해력의 격차가 벌어졌으며 그 크기가 0.7 표준편차 정도이다. 추후 조사에서는 같은 지역 내에서도 특정 역량에 있어 격차가 벌어진 이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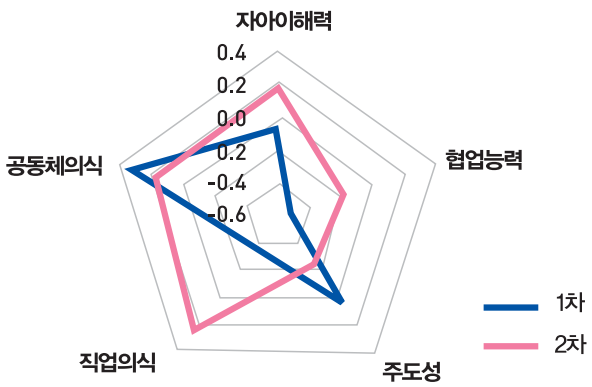
협업 능력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역량이 향상된 결과가 나타났다. 진주 지역에서는 1차 조사에서 0.37점이었는데 0.15점 향상되어 0.52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장 높은 협업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원 지역에서도 각각 0.1점 0.34점의 향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산 권역은 -0.02점, 시내 권역은 -0.19점으로 평균보다 낮은 역량 수준을 보여주었다.

진로 주도성에 있어서는 진주 지역을 다시 주목할 만하다. 1차 조사에서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역량을 보여주었던 진주 지역 학생들은 무려 0.55점이나 향상되어 2차 조사에서는 0.50점에 해당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남원 지역에서는 전반적인 역량 하락이 관찰되었는데, 지리산 권역에서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하락하여 0.04점, 시내 권역에서는 -0.26점 하락하여 -0.24점의 결과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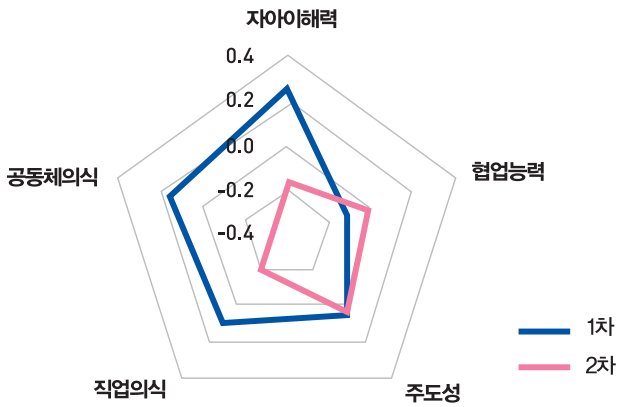
그러나 직업의식에 있어서는 다른 패턴이 나타났다. 진주 지역 학생들이 1차 조사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직업의식을 보여주었던 것에 반해, 2차 조사에서는 0.46점 하락하여 -0.14점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남원 지리산 권역에서도 0.29점 하락하여 -0.21점이었다. 그러나 남원 시내 권역에서는 0.62점 향상되어 1차 조사에서 가장 낮은 -0.38점에서 2차 추적조사에서는 가장 높은 0.23점을 받았다. 직업의식에서도 마찬가지로 남원 지역 내에서 격차가 커졌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지리산 권역 학생들은 역량 수준이 낮아지고, 시내 권역 학생들은 역량 수준이 높아져 약 0.9 표준편차만큼이나 차이 나는 결과가 나타났다.

공동체 의식에 있어서도 1차 조사와 2차 추적조사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1차 조사에서 평균 수준이었던 진주 지역 학생들은 0.21점 향상되어 0.30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공동체 의식 역량을 나타냈다. 그러나 남원 지리산 권역에서는 0.49점이나 하락하여 -0.32점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1차 조사에서 가장 높은 공동체 의식 수준을 보여준 시내 권역에서도 0.13점 하락하여 0.17점인 것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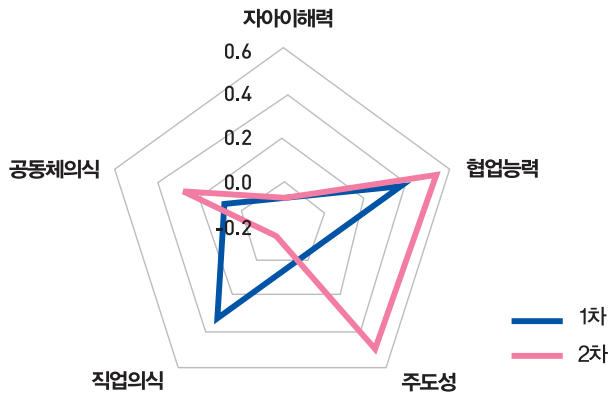
[그림 4-5] 차수에 따른 핵심역량 변화 (남원 시내 권역)



[그림 4-6] 차수에 따른 핵심역량 변화 (남원 지리산 권역)



[그림 4-7] 차수에 따른 핵심역량 변화 (진주 지역)



[그림 4-5]부터 [그림 4-7]은 지역 내 차수 별 변화를 한 눈에 살펴보기 위해 방사형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축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3개 지역을 직접 크기에 따라 해석할 수는 없지만, 지역 내에서 각 핵심 영역에서의 변화를 읽어내기에 용이한 방식이다. 추적조사와 1차 조사의 연계 결과는 사뭇 의미 있게 해석할 가능성이 크지만 약 74% 정도만이 추적조사에 참여했다는 한계가 있음을 염두 해야 한다. 또한, 역량 점수의 크기 자체의 의미보다도 지역 내에서 1차 조사와 2차 조사 사이의 변화 양상과 지역 간 격차에 집중해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역 내 변화 양상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점은 진주 지역 청소년들의 역량 증가와 남원 지리산 권역 청소년의 감소가 대조되는 부분이다. 진주 지역은 공동체 의식과 주도성이 약간 감소했지만, 전반적인 역량이 늘었다. 반면, 남원 지리산 권역에서는 협업 능력을 제외하고 모두 대폭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에는 앞 장에서 설명했듯이 지역별로 모듈 적용을 다르게 한 것을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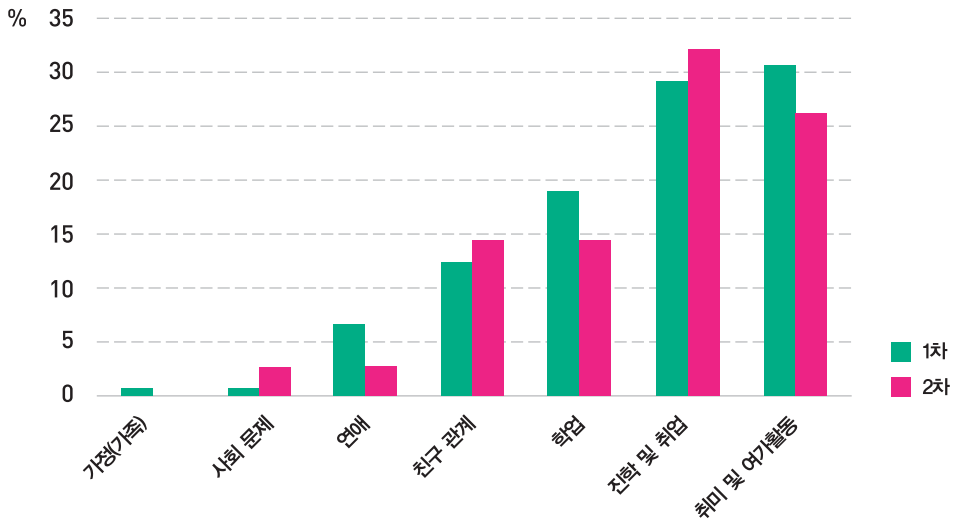
진주 지역에서는 내일상상프로젝트의 모듈을 상상캠프를 생략한 것 이외에는 모두 기본 모형을 따라 적용했다. 남원 지리산 권역에서는 심화형으로 활동 역량이 높은 청소년에 집중하여 1단계, 2단계 모듈을 구성했는데 핵심 대상이었던 청소년 기획단 구성원이 모두 도중 하차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1차에는 전체적으로 활동 역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청소년 기획단 구성원의 하차 이후 남은 청소년들은 초반 1, 2단계의 과정을 자신의 수준에 맞게 경험하지 못한 채 프로젝트 활동을 하게 되면서 역량에서 긍정적으로 변화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남원 시내 권역 청소년은 전반적인 역량의 상승 폭이 진주 지역보다는 작긴 하지만,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시내 권역 역시 모듈을 활동 역량이 낮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변형하여 활용했지만, 전체 과정에 같은 구성원이 목표가 일관성 있게 구성된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모듈 적용에 있어서 내일상상프로젝트가 기본적으로 구성한 모듈의 효용성을 확인할 수 있다. 대상을 특정 집단으로 집중할 목적으로 모듈을 변형할 경우, 대상의 역량에 맞게 구성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1차년도 운영후 평가를 거쳐 내일상상프로젝트모듈의 효용성을 확인한 결과, 2차년도에는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세 지역 모두 기본 모형으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다. 세 지역 모두 상상학교, 내일생각워크숍, 내일찾기프로젝트의 순서를 따르고 내일생각워크숍의 구성 프로그램도 상상캠프, 사전탐색워크숍, 기획워크숍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2차년도에 동일한 문항을 통해 청소년들의 핵심역량을 추적하면, 내일상상프로젝트 모듈을 지속적으로 검증해볼 수 있다.

핵심역량 지수 이외 문항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포착되었다. [그림 4-8]은 우리 프로젝트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현재 주된 관심사로 뽑는 주제에 대해 1차와 2차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설문에 참여한 인원이 다르므로 세로축에는 백분율을 이용하여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 사이의 패턴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차 조사에 비해 '학업'에 응답한 학생들 비율이 줄어들었으며, '진학 및 취업'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학생들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학생들이 전에 비해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비율이 늘어났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그림 4-8] 청소년의 주된 관심사의 차수 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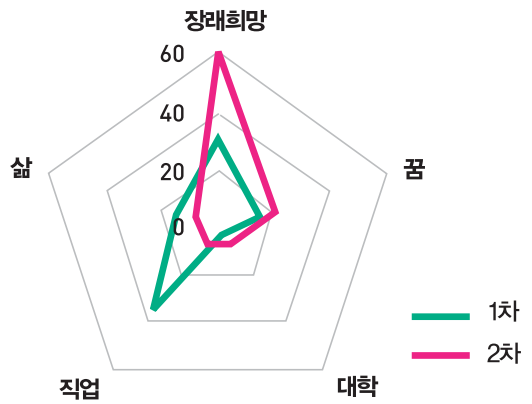
[그림 4-9]부터 [그림 4-11]은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해 생각하는 의미에 대해 1차와 2차 결과를 지역에 따라 나누어 살펴본 결과이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진주 지역학생들에게서 유독 '삶'이라는 응답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2차 추적조사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학생들이 진로를 '장래희망'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조사에서 '직업'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많았으나 2차 추적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현격히 줄어든 점도 주목할 만하다.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진주 지역에서는 1차 조사에서 12%의 학생들이 '대학'이라고 응답했다. '직업'이라고 응답한 학생도 38%에 달했다. 그러나 2차 추적조사에서는 '대학'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으며, 직업이라고 응답한 학생도 1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에 그쳤던 '삶'이라는 응답 비율이 33%로 증가했다. '꿈'이라는 응답도 17%로 5%p, '장래희망'이라는 응답도 3%p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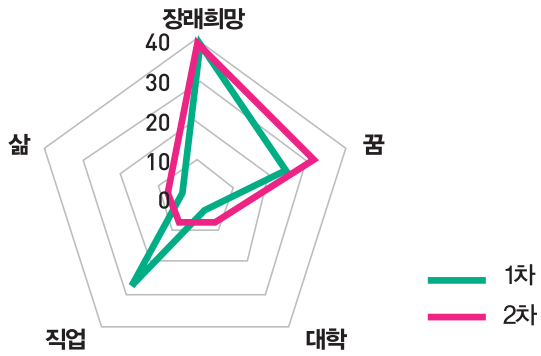
남원 지역의 경우에는 '장래희망'으로 응답한 학생 비율은 38%로 동일했으며, '꿈'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8%p 상승한 31%에 달했다. 진주 지역과의 차이는 '대학'이라는 응답이 '직업'이라는 응답과 같은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차 추적조사에 참여한 절대적인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비율로 분석한 것에 비해 실제 효과는 더 작을 수 있다. '대학'이라는 응답은 4%에서 8%로 증가하였으며, '직업'이라는 응답은 27%에서 8%로 감소했다. '삶'이라고 응답한 학생도 8%에서 15%로 증가했다.

남원 시내 권역에서는 '장래희망'과 '직업'에서 가장 변화폭이 크게 나타났다. 1차 조사에서 30%의 학생들이 진로를 '장래희망'으로, 38%의 학생이 '직업'이라고 응답했으나 2차 추적조사에서는 장래희망의 경우는 절반이 넘는 60%의 학생들이 응답했다. '직업'은 '대학', '삶'과 마찬가지로 각각 7% 학생들이 진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꿈'이라고 응답한 학생도 5%p 증가해 20%의 학생들이 선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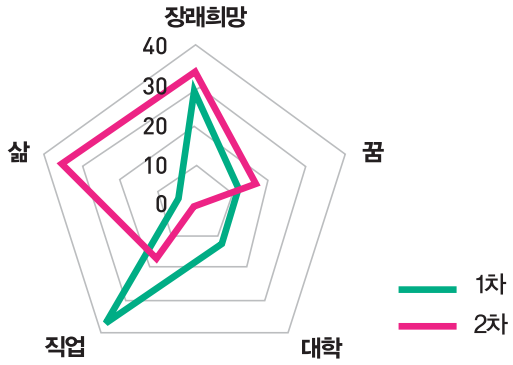
[그림 4-9] 청소년이 생각하는 진로의 의미에 대한 변화(시내 권역)



[그림 4-10] 청소년이 생각하는 진로의 의미에 대한 변화(남원 지리산 권역)



[그림 4-11] 청소년이 생각하는 진로의 의미에 대한 변화(진주 지역)



희망리포트

5.
결론 및 제언

1)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의미

2) 공교육 연계 모형

3) 공동자원체계(commons) 구축

5. 결론 및 제언

1)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의미

내일상상프로젝트는 2016년부터 3년간 구축한 지역 기반 청소년 진로 탐색 모델을 2019년부터 3년 동안 세 지역(남원 시내 권역, 남원 지리산 권역, 진주시)에서 적용한다. 2차 연속사업의 핵심 목표는 새로운 지역에 모델을 확산하는 동시에 모델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확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분석하며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을 보완하고자 한다.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각 지역의 수행기관은 지역사회와 청소년의 상황에 맞게 3개의 모듈(상상학교, 내일생각워크숍, 내일찾기프로젝트)로 구성된 내일상상프로젝트 모델을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3개의 모듈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기존 진로교육에서도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중요하게 강조된다. 실제 직업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 필요한데, 학교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직접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5년 제정된 진로교육법에 따라 학교에서 시행하는 진로체험 활동은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지역 내 진로체험처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분야 및 활동에 참여한다. 진로체험처 정보를 제공하는 전산망 '꿈길'에 전국의 진로체험처를 6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체험 활동을 제공하는 단체 및 기업체 등 물적 자본 중심으로 공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꿈길'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의 진로체험처를 광역·도 단위로 분석한 결과,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 간 양적·질적 불평등을 발견했다. 다만, 양적 불평등은 학생 인구수에 대비하여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인구 기준에서는 오히려 수도권 지역에서 학생 100명 당 진로체험처 수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의 특성과 생활반경이 좁은 편인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성을 반

영하기 위해 면적당 체험처 수를 살펴봤을 때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열악한 상황임이 드러났다. 또한, 체험처 분야의 다양성도 현저히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광역·도 단위가 아닌, 청소년들의 실제 생활 단위에 가까운 시·군 혹은 읍·면 단위로 나눠서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청소년들은 진로체험 활동에서 지역간 불균형으로부터 영향을 얼마나 받을까? 지역 간 불균형은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진행되는 진로체험 활동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을까?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세 지역의 청소년에게 진로체험 활동 경험과 수요를 조사한 결과, 세 가지를 발견했다. 첫째, 교내 진로체험 활동과 교외 진로체험 활동의 경험 및 만족도에서 교외 진로체험 활동의 참여 비율이 교내 진로체험 활동보다 1/3 정도 적은 반면, 만족도는 더 높게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교외 체험 활동 만족도에 긍정적인 편이다. 교외 진로체험 활동의 유형별 경험 횟수와 만족도의 상관관계가 교내 진로체험 활동보다 약 2배 높은 것은 자원 집중 문제의 심각성을 더 드러낸다. 단, 남원 지리산 권역에서는 정반대로 교외 진로체험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의 정도가 교내 진로체험 활동에 비해 적다. 교내 진로체험 활동 경험 비율도 다른 두 지역에 비해 약 8%가 높다. 마지막으로, 교내외 진로체험 활동에서 모두 협업 능력을 강화하거나 지역사회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요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앞의 두 결과는 진로체험 활동의 경험과 만족도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물적 자본보다는 사회자본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교외활동은 가정 내 사회자본(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 및 개입, 부모 자녀 간 상호작용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가정 내 사회자본을 더 많이 가진 청소년이 만족도가 더 높은 교외 진로체험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지리산 권역에서 경험 비율과 만족도가 높은 결과는 해당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자본의 영향으로 보인다. 이렇게 가정 안팎의 사회자본이 진로체험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진로체험 활동에서 청소년들이 사회자본을 축적할 기회가 부족한 것은 문제다.

이번 조사의 성과는 지역사회의 사회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통해 진로체험 활동의 물적·인적 자본 부족 문제를 해소할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이

다. 지역사회와 연계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내일상상프로젝트에서 청소년들은 또래와 함께 프로젝트를 이끌어 가는 것은 물론,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어른들과 만나는 경험을 한다. 올해 각 지역기관은 3개의 모듈에서 모두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내일상상프로젝트 안에서 지역사회와 더 강한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발견했다. 첫째, 상상학교에서는 지역 내에서 관계망을 가지고 있는 인적 자본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인적 자본을 발굴할 수 있다. 상상학교를 통해 연결된 인적 자본은 후속 단계인 내일생각워크숍과 내일찾기프로젝트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내일생각워크숍에서는 워크숍 활동과 콘텐츠를 지역이나 마을과 관련된 주제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마지막으로, 내일찾기프로젝트에서는 길잡이 교사 역할이 중요하다. 길잡이 교사는 청소년들의 프로젝트 활동을 함께 하면서 청소년에게 필요한 자원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학교의 사회자본도 활용한다. 1차 연속사업에 이어 2차 연속사업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학교와의 연계가 관찰되고 있다. 연계 내용은 주로 청소년 참가자 모집, 공간 지원, 교사의 수업 및 지도 경험 활용 등으로 이뤄진다. 학교가 현행 진로체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갖는 관계는 여전히 물적 자본 중심이고, 따라서 비수도권 지역의 구조적인 한계로 이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수가 없다. 내일상상프로젝트의 학교 연계는 사회자본을 바탕으로 한다. 학교-진로체험센터 등의 기관 간 연계가 아닌, 교육 및 활동 의지가 높은 교사들이 개인 단위에서 관계를 가진다. 이를 통해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소개하여 교내에서는 제공하기 힘든 활동을 통해 성장하고 학습할 기회를 얻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내일상상프로젝트의 경험은 청소년과 교사들의 학교 내 사회자본을 더 강화시켜준다.

지역사회와 학교의 사회자본을 바탕으로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어떠한 변화를 보였을까? 내일상상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구성한 5개 역량지수(자아 이해, 협업 능력, 주도성, 직업의식, 공동체 의식)를 추적조사한 결과, 남원 지리산 권역을 제외한 두 지역에서는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역량이 높아진 것을 발견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세 지역에서 협업 능력의 향상이 공통적으로 관찰이

되었다. 협업 능력은 또래 관계, 집단 활동 역량 등 사회자본 형성에 기본적인 역량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결과다. 이는 기존 진로체험 활동에서는 반대로 가장 약한 요인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내일상상프로젝트의 모듈이 가진 효용성을 확인한 것이 주요한 성과다. 내일상상프로젝트 세 개 모듈을 기본 형태로 적용한 진주 지역의 청소년에게서 긍정적인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이다. 1차년도 운영 후 평가를 거쳐 내일상상프로젝트 모듈의 효용성을 확인한 결과, 2차년도에는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세 지역 모두 기본 모형으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다. 세 지역 모두 상상학교, 내일생각워크숍, 내일찾기프로젝트의 순서를 따르고 내일생각워크숍의 구성 프로그램도 상상캠프, 사전탐색워크숍, 기획워크숍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2차년도에 동일한 문항을 통해 청소년들의 핵심역량을 추적하면, 내일상상프로젝트 모듈을 지속적으로 검증해볼 수 있다.

비수도권 지역에 나타나는 물적 · 인적 자본 부족 문제를 사회자본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과 내일상상프로젝트의 모듈에 따라 청소년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사회자본을 활용하여, 스스로 사회자본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음을 발견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내일상상프로젝트가 지역사회 안에서 공교육과 연계하여 진행할 필요성(학교 사회자본 활용)과 더 나아가 공동자원체계를 갖출 것(지역사회 사회자본 활용)을 제언하고자 한다.

[표 5-1] 학교 및 지역사회의 사회자본을 활용한 내일상상프로젝트 운영 방안

사회자본 구분	활용 및 운영 방안
학교의 사회자본	공교육 연계 모형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공동자원체계 구축

2) 공교육 연계 모형

지역사회와 관계 맺기에 있어서 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학교와 자연스럽게 적극적인 연계를 하게 된다. 이는 1차연속사업에서부터 나타난 양상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내일상상프로젝트 전 과정에 걸쳐 학교와 접점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와 연계하는 것은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수행기관이나 참여 청소년에게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사 및 학교 안으로도 그 영향력이 확산된다.

내일상상프로젝트의 학교와 연계 가능성, 그리고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통해 구축되는 지역기관과 학교 간의 상보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본 절에서는 내일상상프로젝트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공교육 연계 모형을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기존 학교-지역사회 연계 모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진로교육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시도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 활성화(황여정, 201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아미, 2018), 청소년 성장 지원 시스템 통합(이윤주, 2018) 등의 목적을 위해 지역사회와 청소년 기관, 학교, 청소년 협의체 등이 연계하는 형태는 다양하다. 하지만, 모두 운영주체를 기준으로만 하는 모형이라는 한계를 가진다.

최창욱(2009)은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계되는 형태를 세 가지 기준(자원의 성격, 운영 주체, 실행 공간)으로 유형화했다. 자원의 성격에 따라서는 인적 자본, 기관 자원(청소년 기관), 프로그램 자원으로 분류했고, 운영 주체는 학교, 청소년 자원(청소년 수련원 등), 지역사회(지역기관) 중 누가 사업을 주도하는지로 구분했다. 마지막으로, 사업이 이뤄지는 공간이 어디인지에 따라 학교 중심, 기관 중심, 지역사회 중심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표 5-2] 참고).

[표 5-2] 주관(열)-장소(행)에 따른 연계사업의 모형(최창욱, 2009)

	학교 주관	청소년 자원 주관	지역사회 주관
학교 내부형	학교주관으로 학교에서 개최하면서 청소년기관이 학교를 지원	학교를 이용하여 청소년기관이 주관하면서 학교에서 운영 지원	학교를 이용하여 지역기관이 주관하면서 청소년자원이 지원
청소년 기관형	청소년기관의 공간/자원의 지원을 받아 학교에서 사업 주관	청소년 기관이 자체 자원을 활용하여 주관하면서 학교는 참여 지원	청소년기관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기관이 주관, 학교의 참여지원
지역 사회형	지역사회에서 학교가 사업을 주관하고 청소년자원의 지원 받음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기관이 사업을 주관하면서 학교의 지원 받음	지역사회에서 지역의 자원들이 사업 주관하면서 지원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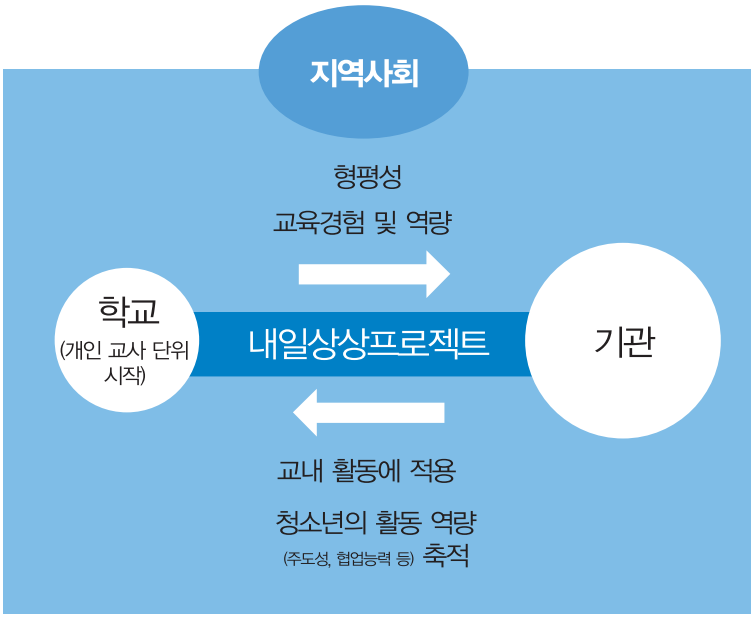
이러한 분류에 따라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학교와 연계 운영한 양상을 분석해 보면, 내일상상프로젝트는 프로그램 자원으로 지역사회의 주도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는 형태에 가깝다([표 5-2] 음영 표시 부분 참고). 운영 주체로 보자면, 지역기관이 중심에 있기는 하지만, 기관이 중심에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결고리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학교가 지역기관을 통해서만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내일상상프로젝트에서는 학교의 지원이 청소년 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신청자를 받는 정도에 그치지 않았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길잡이 교사로 함께 참여한다. 교사의 교육경험 및 교육역량은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워크숍 등을 계획하는 데 발휘된다.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통해 교사가 청소년의 잠재성에 대해 가지게 된 신뢰와 청소년이 쌓은 활동 역량을 학교 안으로 가지고 들어간다. 내일상상프로젝트와 똑같은 활동을 학교 안에서 적용하기에는 제도와 예산의 제약이 있지만, 자율 동아리, 창의체험 활동부터 교과과정 안에서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지역기관과 학교가 지역사

회 안에서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통한 파트너 관계로 연계한다는 점이 기존 진로체험 활동과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즉, 학교와 기관이 지역사회 안에서 프로젝트를 통해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림 5-1]에서 기관의 영역을 학교보다 크게 나타낸 것은 기관의 역할이 더 크기 때문이고, 관계의 위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지역기관의 역량, 지역사회 현황,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정착 단계 등에 따라 각 영역이 차지하는 부분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림 5-1]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지역사회-학교 연계 모형



프로그램 자원을 통해 학교와 기관이 연계하는 것은 기존에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기본 모형인 학교 중심 모형이나 청소년 기관 중심 모형이 가지는 한계를 해소해준다. 지역기관은 학교와 연계할 때 가장 큰 불만으로 학교의 협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학교는 지역기관과의 협업이 어려운 이유가 지역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임지연 외). 김수영 · 강현주는 결국 서로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데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한다. 내일상상프로젝트가 학교 단위로 연계를 하기보다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진로를 탐색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활동을 해보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교사개인들이 지역기관과 연계

해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러한 경험이 축적되면, 교사의 청소년에 대한 신뢰나 청소년과 교사의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지역기관과 학교 사이에도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3) 공동자원체계(commons) 구축

(1) 지역자원 아카이빙 및 활용

학교와 지역기관이 모두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지역 내 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성장을 지원하는 모형을 통해 내일상상프로젝트는 각 지역에서 지역자원들을 발굴하고, 활용했다. 2019년에는 세 지역 모두 처음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연계 및 활용보다는 발굴에 중점을 뒀고, 지역에 따라서는 활용이 이뤄진 경우도 있다. 1차년도에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연결망을 통해 새롭게 발굴하거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원들을 아카이빙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남원 시내 권역([표 5-3] 참고)은 주로 공간 자원을 발굴하고 아카이빙했다. 공간 자원 중심으로 조사한 방식에는 수행기관이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위탁·운영했던 이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꿈길'과의 차이다. 6개의 유형에 따라 인증 및 점검 절차를 거쳐 '꿈길'에 등록되는 체험처보다 지역기관이 직접 발굴한 지역자원은 많고 다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남원 시내 권역이 아카이빙한 자원은 성격상 물적 자본에 해당하여, '꿈길'의 자원이 가진 성격과 큰 차이가 없다. 2·3차년도 사업을 운영하며, 자원의 폭을 점점 넓혀가고자 한다.

[표 5-3] 남원 시내 권역 지역자원 아카이빙 결과

지역	자원명	공유자원
남원 (시내)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전시관, 국악공연
	금동작은도서관	청소년 프로그램, 공간, 도서
	김병종미술관	전시, 체험교육프로그램, 아트캠프
	꼼지락아트	공예활동, 쿠킹클래스 등 체험
	꿈꾸는 자작나무	캘리그라피, 공예활동, 기초미술
	남원 YWCA	사회참여 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남원가온공예협동조합	수공예, 원예 활동
	남원공방	목공, 가죽공예, 수공예 활동
	남원교육문화회관	특기 적성 교육
	남원사회복지관	취약계층 아동 지원, 공간 대여
	남원시 공동체지원센터	마을 학교, 공간 대여
	남원시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자치활동, 동아리, 진로 프로그램, 방과 후 아카데미, 공간 대여
	남원시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인문학 강연, 문화 분야 특강, 도서 대여, 도서 관련 프로그램
	남원진로체험지원센터	진로 특강, 체험, 박람회, 진로 동아리 활동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천체 관측 및 관련 체험 활동, 전시관
	남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 청소년 진로 및 성장 지원 프로그램
	달토끼네집	요리 관련 체험 프로그램, 교육
	독우물 작은도서관	독서 관련 활동, 독서 교육
	메카센트럴도서관	가죽공예, 보드게임, 책놀이, 요리수업
	모모에게말걸기 작은도서관	방과 후 마을학교, 글쓰기 동아리 활동
	문화예술협동조합 보이고	영화 상영, 영상 교육, 보드게임, 축제
	미미카페공방	떡, 쌀베이킹, 바리스타 관련 프로그램
	바늘그리고나 손뜨개공방	손뜨개 교육 프로그램
	빨간사과 작은도서관	독서 교육, 활동, 그림책 대여
	새싹작은도서관	독서 교육, 활동, 도서 대여
	손놀림-폼앤피오피	리본공예, 손글씨, 종이접기, 한지공예 교육
	송동 작은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독서동아리 활동, 체육시설

지역	자원명	공유자원
남원 (시내)	수지미술관	교육체험 프로그램, 전시, 공간
	숲 볼링장	볼링 강습 및 지도
	아티	목공예 체험
	오들작은도서관	독서 프로그램
	우리놀이문화센터	전래놀이 및 다도체험 체험, 도구 대여
	이그린작은도서관	도서, 공간 대여
	자원봉사센터	청소년 멘토링,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자원봉사 기본교육
	좋은열매도서관	독서미술, 창의미술, 등 미술 관련 교육, 동아리 활동 공간 대여
	주천 작은도서관	도서 대여, 동아리, 도서관 축제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	자유학기제 연계 체험 프로그램
	쪼재작업실	요리 수업
	청년문화협동조합놀자	놀자랩, 메이커 체험, 교육
	청소년수련관	공간 대여, 청소년 문화, 자치 진로 활동
	핸드메이드	재봉기, 바느질 교육 프로그램, 수공예 활동
	핸드메이드미	공예 체험 활동
	호아 핸드메이드	과학 및 수학 연계 미술 활동, 공예 체험
	혼불 작은도서관	독서 프로그램, 공간
	혼불문학관	〈혼불〉 작품 관련 체험 활동
	황죽 작은도서관	문화 체험 활동
	휴먼시아 작은도서관	독서 관련 활동, 교육, 공예 체험

반면에, 남원 지리산 권역([표 5-4] 참고)은 지역사회에서 구심점이 되는 공동체 중심으로 아카이빙했다. 교육이나 체험 목적의 활동을 제공하는 자원보다는 분야에 상관없이 자발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는 청소년들에게 공간 자원, 인적 자본 등을 지원해주는 네트워크 중심이다. 지리산 권역에서는 1차년도에도 네트워크를 통해 진로탐색 활동과 연계한 사례도 있었다. '아꿈 학부모회'를 통해 내일상상프로젝트에서 벽화 그리기를 주제로 한 팀의 길잡이 교사를 새롭게 발굴했다. 이 경우,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발굴한 자원으로,

지역기관뿐 아니라, 청소년 역시 지역자원 발굴에 참여하는 것이다.

[표 5-4] 남원 지리산 권역 지역자원 아카이빙 결과

지역	자원명	공유자원
남원 (지리산)	아꿈 학부모회	인적 자본 공유
	작은변화포럼	시민사회 활동에 필요한 공간 및 인적 자본
	지리산 이음 사회적협동조합	공간 대관, 청소년 네트워크 지원
	품안 작은도서관	도서, 영상, 공간, 교육 프로그램
	한생명	목공실, 느티나무 사랑방, 재활용 옷가게

진주 지역(표 5-5 참고)의 발굴 자원에는 인적자본, 물적자본, 사회자본이 모두 분포되어 있다. 교사, 시민사회, 마을학교 등 네트워크로 조직된 진주 지역 수행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1차년도에 발굴한 자원을 2차년도에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연계해서 진행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표 5-5] 진주 지역 지역자원 아카이빙 결과

지역	자원명	공유자원
진주	강경화	관심 분야 소개 및 연결, 멘토링
	강신영	충무공동 지역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상담 등
	경남대 마을공동체지원단	마을공동체 및 마을기업 교육, 컨설팅
	권은진	심리상담, 하부르타 메타인지 개발, 공동체 의식 교육
	김민숙	멘토링, 이공계 진로상담, 과학 관련 체험
	김소형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연결, 멘토링, 상담, 정보 제공, 프로그램 기획
	김수현	워크숍 진행
	김준형	노동상담 (임금체불, 부당해고, 노조가입, 직장갑질 등)
	김태양	특강
	도서출판 곰단지	출판, 홍보물 제작지원, 글쓰기 독서지도, 도서 제작 특강

지역	자원명	공유자원
진주	마하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청소년 동아리 활동, 마을학교 활동
	모두의 아지트	공간 대여
	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 필통	진주청소년신문 〈필통〉, 공간 대여, 청소년 자기성장캠프
	사회복지법인 진주시사회복복지협의회	청소년 문화체험 프로그램, 장학금 지원
	손경란	청소년 상담사 연결, 청소년상담 관련 프로그램 및 활동 소개
	오형래	사회적기업 관련 멘토링, 특강
	이수민	페미니즘/평화통일 교육, 대안학교 관련 고민상담
	진주 시니어클럽	실버카페, 노인 관련 프로그램, 공간
	진주YMCA	시민운동, 환경운동, 청소년 운동, 사회체육, 어린이 교육 활동, 공간 대여
	진주교육공동체 결	관심주제 관련 멘토 연결, 청소년 토론회 지원
	진주놀자학교 놀고재비협동조합	친화력프로그램, 응집력프로그램, 놀이문화확산놀이터활동, 수업연계활동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모교육, 심리검사
	진주시 평거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1:1 멘토링
	진주시민미디어센터	미디어 교육, 체험, 중고등학생 동아리 활동, 영화 정기상영회
	진주여성회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청소년 활동 공간 대여
	진주여성회 부설 달팽이어린이도서관	청소년교육 나눔 활동, 체험 보조교사 활동
	진주우리먹거리협동조합 진주텃밭	직거래 장터, 아나바다 장터, 고구마와 따리 캐기, 우리밀 체험
	진주지역자활센터	교육, 상담, 일자리 연계
	청년협동조합 밥꿈	초중등생을 대상 중앙시장 체험 및 경제교육 등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진주지부	청소년인권교육, 청소년인권과 관련된 캠페인 및 활동, 청소년인권 관련 활동 공간 대여

(2) 내일상상프로젝트와 공동자원체계

내일상상프로젝트는3년 동안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한 자원을 매핑하여 공유할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 공유는 '꿈길'의 데이터와 유사하지만, 두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유형화되지 않는 자원을 함께 다루면서 실제 사용자가 필요한 자원을 접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 기관, 학교 교사들은 물론 서비스의 최종 사용자인 청소년도 직접 자원의 발굴과 생산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공동자원체계(commons)[24]의 특징을 따른다. 공동자원체계 안에서는 자원의 생산자와 사용자가 구분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생산자와 함께 자원을 함께공동생산(co-production)한다.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 서비스의 최종 사용자는 더 실효성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동자원체계는 공동체 내부와 더 나아가 외부의 약자들을 배제하지 않는 것을 도덕철학적 윤리로 전제하고 있다(장훈교, 2019). 이런 점에서는 자원의 생산자와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내일상상프로젝트 역시 다양한 주체들이 공동생산(co-production)한 자원을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현재는 참가 대상이 아닌 학교밖 청소년이나 다양한 이유로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었던 청소년도 발굴된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학교와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해 자원을 발굴하고 (재)생산하면서 활용하는 공동체의 범위를 점점 확장해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한 지역사회에서 직접 자원 발굴 및 (재)생산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까지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원 (재)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이 자원을 이용하면서 새로운 자원을 (재)생산하는 체제는 선순환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 안에서 구축되는 공동자원체계를 기반으로 지역기관의 자립과 지속가능성

24) Commons에 대한 번역어로 '공통자원', '공동자원' 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 장훈교(2019)의 번역어인 '공동자원체계'를 선택한 것은최근 논의되는 commons는 자원으로 환원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에 동의해서이다. 내일상상프로젝트에서도 자원을 발굴하고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공동자원 자체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 안에서 자원을 (재)생산하는 구조가 구축되는 것을지향하기 때문에 더 적합한 번역어로 판단했다.

을 높이고자 한다.

내일상상프로젝트은 다양한 방향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역 간 모델의 이식만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도 영역 간 확산이 나타나고, 더 나아가 내일상상프로젝트로 발굴된 지역자원 활용 범위의 확산을 지향하고 있다. 공교육으로의 확산 자원 활용 범위를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내일상상프로젝트의 확산을 목표로 사업을 운영하는 남은 2년 동안의 주요 과제일 것이다.[25]

25) 1차연속사업에 참가한 지역의 지역사회 및 학교 내 변화를 함께 볼 예정이다.

■ 단행본

김수영 · 조현진(2019), 「청소년의 오늘 그리고 (and drawing) 내일: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내-일상상프로젝트 매뉴얼」, 희망제작소

야마시타 유스케(2019), 『지방회생: 인구 감소와 수도권 초집중 극복의 길』, 이상북스,

이상윤(2010),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장훈교(2019), 「일을 되찾자:좋은 시간을 위한 공동자원체계의 시각」, 나름북스.

Coleman J. S.(1966), Equality of Eductiaonal Opportunity, 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Office of Education

■ 논문

민병성(2006), 「도농간 학교교육 격차의 근본 원인과 해소 방안 탐색」, 교육연구 제20집, 공주대학교 교육연구소. 77-97.

이정선(2005), 「사회자본 구축을 통한 농어촌 학생의 학업격차 개선방향」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37권 2005년 제1호(2005-3), 131-150.

진미석(2015), 「진로교육법 제정과 진로교육의 미래」, 《The HRD Review》 2015년 7월호, 8-27.

홍정희(2016),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활동 경험의 교육적 의미: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Braatz J., Putnam R. D.(1996), FAMILIES, COMMUNITIES, AND EDUCATION IN AMERICA: EXPLORING THE EVIDENCE, Office of Educational Research and Improvement

Coleman J. S.(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4, 95-120.

■ 연구보고서

김수영 · 강현주(2018), 「지역청소년의 내-일 탐구와 모색: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희망리포트 2018-01.

김영철(2003), 「서울시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CR 2003-8.

이윤주(2018), 「지역사회 협력망 운영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개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35-01.

이정선(2004), 「교육소외 집단의 교육실태 및 대책」,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 RM 2004-41.

임지연 외(2016),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의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방안 연구: 청소년(수련)시설과 학교의 협업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6-R10

조아미(2018),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 18-16-1.
최창욱(2009), 「지역사회 아동 · 청소년 인프라 활용방안 연구: 학교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 09-R04.
황여정(2018),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 18-R04.

■ 관련기사

김정섭, 「도농 격차와 농촌 주민의 사회적 배제」, KERI 논단, 2017년 8월 22일
정성훈, 「비수도권 지역의 '학교 소멸', 이대로 둘 것인가」, 프레시안, 2019년 8월 30일
함세정, 「[세상읽기] 정든 선생님은 자르십시오」, 여성신문, 2019년 3월 11일

■ 법령 및 통계 자료

진로교육법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36호, 2015. 6. 22., 제정]
통계청(2002), 사회조사
통계청(2018), 사회조사
한국교육개발원(2019), 유초중등통계

■ 기타

꿈길, https://www.ggoomgil.go.kr/
남원 교육지원청, http://jbnwe.kr/

내일상상프로젝트의 확산과 지역사회 및 학교 연계운영 방안

발 행 인 정지강

연구책임 유진

편 집 시민주권센터

디 자 인 조완철

발 행 일 2020년 03월

발 행 처 희망제작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92

Tel. 02-3210-0909 Fax. 02-3210-0126

www.makehope.org

2019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보고서를 무단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희망제작소
The Hope Institute

03008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92
Tel. 02-3210-0909 Fax. 02-3210-0126
www.makehope.org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보고서를 무단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